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아시아미국위원회 회장 엘리사 최 "아시아인은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유니티 디너〉서 "아시아 중대한 도전 직면" "모든 분야에서 소외된 아시아인" 변화 필요한 이유
회장, 유니티 디너 개최사에서 "아시아인의 자각" 강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엘리사 최 아시아미국위원회 회장이 "미국사회 전반에서 아시아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주문했다.

5월 29일 보스톤대학 맷켈프홀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니티 디너〉에서 엘리사 최 회장은 "아시아인은 교육과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열정적인 연설을 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엘리사 최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아시아인의 일부는 가장 고학력이지만 일부 아시아인 그룹은 가장 낮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엘리사 최 아시아미국위원회 회장

으로 부를 누리지만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일부도 있다"고 아시아인 사회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이 아시아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사회내에서 아시아인이 눈에 띄지 않다(invisible)는 점도 제기했다. "영화, 연예계에서 아시아인은 거의 없다. 의학 및 정치 관련 소수민족 조사에서 아시아인은 없으며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료의 부재는 아시아인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지도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아시아미국부동산협회(AAREA)가 미 샌서스에서 "아시아인은 결코 기타(Other)가 아니라는 "No Other" 캠페인을 벌여 관철한 것은 엘리사 최 회장

▶▶ 7면으로 계속



5월 29일 보스톤 첼시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추모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 보스톤지회 참전용사 사망자 명단(35명)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름을 지면으로나마 불러드립니다.

- Rocco J Barbuto/ Eugene Calibani/ Richard A Ceurvels/ Sam G Cherone/ Herbert J Cleary/ Joseph D Colantoni/ Culhane William F/ John P Curran/ John Garabedian/ Donald V Gearan/ Edward J Hanrahan, Jr./ Roger B Hathaway/ Paul C Hines/ Frederick F Holmes, Jr./ Paul B Johnson/ Robert F Kelley/ Richard J Latch/ Thomas J Latham/ Robert J Maccini/ Robert J Maestri/ Frank Marzeotti/ Arthur F McCaffrey/ Donald J McNutt/ Thomas C Murphy/ Peter J Orphanos/ Lawrence F Rooney/ Robert D Rutter/ Richard J Schneiderham/ Gary R Sherman/ Willie Smith, Jr./ Lavone W Tueting/ John S Varner, Jr./ John E Woefel/ William A Wright/ Albert G Florenza

매사추세츠 보스톤 지부(Chapter 300) 이외 지부의 사망자 명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명단을 보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3면 〈한국전 참전용사 급감 추세〉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한국행항공권 \$870~**부터

미서부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고국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보세티티/샌프란시스코 4박5일 \$465~	서남권 3박4일 \$609~
미서부3대개항 4박5일 \$470~	충북권 3박4일 \$609~
미동부관광 (뉴욕 포함)	선국일주 8박9일 (시애틀, 로키산, 밴쿠버)
워싱턴 / 나이아가라 / 리 뉴욕시대 4박5일 \$680~	\$1,388~
미동부&캐나다 4박5일 \$800~	

IACE TRAVEL 부의전화: 1.617.424.8956 /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 Chang Yoon, DPT**
브룩라인(하나병원) 원장 **Dr. Miran Kwon, 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톤 크리닉 **617.731.1001**
브룩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메모리얼데이 곳곳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식

보스톤, 앤도버, 서부 등 매사추세츠 5개 지부 로드아일랜드에서도 추모식
90세 가까워진 한국전 참전용사들 급감 추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통은 바비큐의 날 정도로 여기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한국에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추모식이 보스톤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렸다.

한국전으로 끈끈한 정서가 남아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식에는 한인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매사추세츠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을 관장하는 한국전참전용사 제 300지부도 29일 켈시 소재 한국전참전용사기념탑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눈에 띄게 줄어든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참석한 기념식에는 엄성준 보스톤총영사와 오진관 영사가 참석했다. 엄 총영사는 한국전에서 소중한 목숨을 바쳐 한국을 지켜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한미양국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추모사를 전했다.

제 300지부 존 탐슨 회장은 지난 2016년 한해동안 35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사망자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다. 추모식 후 참전용사들과 총영사관 참석자들은 인근 99레스 토랑에서 함께 점심을 나눴다.

이날 추모식이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은 켈시 네이비아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함 USS Constitution과 박물관 뒷쪽에 위치하고 있다. 엄성준 총영사는 이 기념탑이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이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앤도버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가득찬 헌신으로 영원하리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국전 참전용사 5개 지부중 하나가 있는 앤도버에서는 메모리얼데이에 퍼레이드를 갖는다. 올해도 29일 앤도버 퍼레이드에는 한국전참전용사회, 노인회 및 지역 한인들이 참가했다. 한인들은 한복과 북 장고등 전통악기를 가지고 참가해 미국 지역사회에 한인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득찬 헌신으로 영원하리라” 라는 주제로 세계1차대전

메모리얼홀에서 출발한 퍼레이드가 완료된 후 앤도버 타운은 참전용사와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이번 퍼레이드에 참가한 본지 신영 칼럼니스트는 “해마다 줄어드는 한국전참전용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고인이 되신 분들의 희생을 기렸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번 퍼레이드에 참가한 본지 신영 칼럼니스트는 “해마다 줄어드는 한국전참전용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고인이 되신 분들의 희생을 기렸다” 고 밝혔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서부 매사추세츠 노스햄턴 추모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노스햄턴 시는 28일 토요일 리즈 참전용사 추모비정원에서 메모리얼데이 추모식을 진행했다.

나케워즈 노스햄턴 시장은 기념사에서 국내외 세계 여러 전투현장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순국선열의 뜻을 가슴에 새겨 아직도 자유를 위협하는 이들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리즈초등학교 줄리엣 랑거 학생이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낭독했다. 또한 전장에서 숨진영령들을 위한 추모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기념식에 참여한 한미정지력신장연대의 김성혁 회장은 노스햄턴 지역에서 한국전에 참가해 사망한 50여명의 참전용사비에 헌화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노스햄턴 시는 28일 토요일 리즈 참전용사 추모비정원에서 메모리얼데이 추모식을 진행했다

로드아일랜드 메모리얼데이 기념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5월 29일 로드아일랜드 참전용사추모묘역(RI Veterans Memorial Cemetery) 소재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5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권성환 부총영사 부부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원들이 참여했다. 윤광욱씨의 미국 국가, 한국 애국가 선창에 이어 조봉섭회장과 권성환 부총영사가 헌화했다. 권 부총영사는 영화 <국제시장>을 인용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5월 29일 로드아일랜드 참전용사추모묘역(RI Veterans Memorial Cemetery) 소재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모식 후에는 조원경 재무

가 운영하는 중국식당 Cathay Garden에서 점심을 함께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전 참전용사 85세 넘어 급감 추세

지난해 보스톤 지부에서만 35명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전이 발발한지 67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들의 수가 한해가 다르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9일 보스톤 한국전참전용사 제300지부의 존 톰슨 회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지부의 참전용사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존 톰슨 회장은 “매사추세츠에는 보스톤, 앤도버, 우스터, 케이프코드, 그리고 서부 매사추세츠까지 5개 지부가 있다. 단순히 35에 5를 곱하면 175명 정도가 지난 한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참전용사들은 모두가 85세가 넘고 90세를 바라보는 연령들이라 자연적 감소추세는 해가 거듭할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조봉섭 회장은 “작년에 6분, 올해는 5분의 로드아일랜드 2지부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셨다. 10년전만해도 이곳에서 거의 30여명의 참전용사님들이 참석하였는데 지금은 몇분 안된다. 대부분이 모두 연세가 85세가 넘어 한 해 한해가 다르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5월 29일 보스톤 첼시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추모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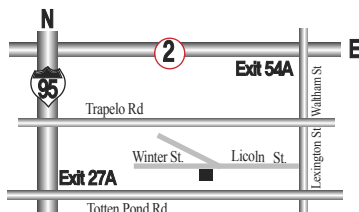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민단속 대비 권리 알려주는 앱 출시

미교협과 민족학교 권리 알리는 앱 <당신의 권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민 단속과 추방 등으로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교협과 민족학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이 앱은 경찰이나 이민단속반(ICE)의 단속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언어를 확충할 계획이다.

디자인, 개발, 번역에 이르기까지 IT 기업의 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이 앱은 설치만 하면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세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설명해 주고 미교협과 United We Dream의 24시간 전화 핫라인(한/영/스페인어) 연결, 이민 단속반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메시지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앱 개발의 아이디어를 낸 민족학교의 김정우 회원개발담당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 저희 직원들이 공공장소와 민족학교 등



'당신의 권리' (Know Your Rights)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에서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자료 등을 나눠 주고 있지만, 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동기를 설명했다.

김정우씨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이민자 대장정"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이민자들은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

체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앱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권리' (Know Your Rights)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nakasec.org/ko/rights>에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연례 골프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기술자 협의회(이하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는 7월 8일 토요일 오후 12시 스토우에이커 컨트리클럽(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연례 골프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기존 회원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개최된다. 또한 평소 과기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가할 경우 골프도 즐기고 \$35의 과기협 연회비도 면제된다. 과기협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한인들에게는 차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조진행 회장은 보다 많은 지역 한인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과학 기술 분야 전공자뿐만 아니라 평소 과기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도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미 과학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 사이트인 <https://sites.google.c->

[om/site/kseaneorg/](https://sites.google.com/site/kseaneorg/)를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홀스폰서는 각 홀당 \$100이며 각 홀에 소속과 성명을 게시한다. 문의는 조진행 준비위원장 (jinhaeng@hotmail.com, 781-266-6990)에게 하면 된다.

이번대회 참가비는 개인 \$100이며 부부동반의 경우 \$180이다. 참가비에는 카트와 점심, 저녁, 회비 등이 포함된다.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는 매년 골프대회, 수학경시대회, 경력개발 세미나, 연말 모임 등을 통해 회원간의 소통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 일시: 2017년 7월 8일 (토) 12:00PM(체크인), 1:30PM(Shotgun).

- 장소: Stow Acres CC, South Course, 58 Randall Road Stow, MA 01775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더울땀 시원하게 '에너지 업!' 하세요.



**여름철
기력회복엔
역시 홍삼이
좋습니다.**

유농후, 홍삼 농축액 100% 에너지업!
✓ 기력회복
✓ 면역력 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알코올 해독
✓ 간 맛 신장 기능 개선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결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공립학교 교장, 애머스트 한국학교 방문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지난 5월 26일 애머스트 지역에서 30여년 간 교육자로 재직해 온 닉 야프 애머스트 와일드 우드 공립학교 교장과 웬디 야프 크라커팜 플리스쿨 교사 부부를 초청해 한국학교를 소개하고 강연을 들었다.

야프 교장 부부는 박철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한국학교 각 반의 수업을 참관하며 한국학교의 운영 방식과 지역 한인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활동 사항에 관심을 표했다. 야프 교장 부부는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운영진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박 교장의 소개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야프 교장은 “앞으로 애머스트 한국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 고 밝혔다.

학교 특별활동 시간인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의 행사에서 중등부 학생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학교의 역사 및 현황을 소개했다.

닉 야프 교장은 강연에서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아 온 여러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하고 있는 한국학교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박 교장은 “닉 야프 교장 부부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더 한국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 며 두 선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서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인 동포, 그리고 지역의 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배움의 공간이다. 현재 유아부부터 중등부까지 5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스물 두 명의 담임 교사, 보조 교사, 특별활동 교사들이 모두 자원 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amherst-koreanschool.korean.net 을 참고할 수 있다. 후원 및 기타 문의는 이메일 koreanamherst@gmail.com 으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모든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과의 기념 촬영



화음 오케스트라 한국방문 연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화음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의 한국방문연주가 6월 3, 4일 양일에 걸쳐 충북속리산에서 열리는 나인밸리 뮤직축제(NineValley Music Festival)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 연주회는 화음보스톤챔버와 버클리음대출신 Jazz 음악가들이 ‘속리산의 4계절’ 이란 테마를 가지고 classic music 과 Jazz 로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무대를 꾸민다.

박진옥음악감독과 함께 기획진행을 하는 장수인단장은 “아름다운 속리산에서의 야외음악회가 작년에 큰 호응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갈 것” 이라며 “뛰어난 보스톤의 음악인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화음보스톤의 현단원들과 한국에 돌아가 자리잡은 예전 화음보스톤멤버들이 함께 home coming Concert 같은 즐거운 연주로 보스톤의 음악인들을 알릴 것” 이라고 전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Nine Valley Forest Resort 는 충북보은에 위치한 자연 리조트로 천문대와 야외음악당이 속리산의 절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 휴양지이다.

화음보스톤챔버는 가을정기연주회와 메인주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1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그림그리기 대회

8개 한국학교 100여명이 그림 실력 겨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NAKS-NE, 이하 협의회)가 5월 27일 네이티브에 위치한 코치추에이트공원(Cochituate park)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비온 후, 활짝 개인 날씨 속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천주교 한국학교, 퀸지 한국학교, 한마음 한국학교 등, 이 지역의 8개 한국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가하여 각자의 그림 실력을 겨루었다.

참가 학생들은 풍경화와 상상화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전체

공통 주제로 <공원 풍경>이 주어졌고, 상상화는 각 학년 별로 주어진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그릴 수 있었다. 그림 그리기를 마친 학생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바베큐파티를 하며 5월의 자연을 즐겼다.

이번 대회는 프리킨더부터 10학년 까지 모두 12그룹으로 나누어 각 학년 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되었고, 대상 작품을 다시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전체 대상인 협의회장상으로 결정했다.

이 날 심사는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교장인 김희몽심사위원장, 보스톤 한국학교 김희진교사, 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손은혜교사 등 미술전공교사들이 맡았다. 김희몽심사위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우수한 실력을 보였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리는 모습에서 전체 참가자들에게 다 상을 주고 싶다” 며 “계속 각자가 가진 꿈을 그림을 통해 마음껏 표현해 달라” 고 말했다.

영예의 협의회장상은 <동그라미가 없는 세상>을 그린 안예선 학생(북부보스톤한국학교, 2학년)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제에 맞는 그림 내용을 선택하고, 도시의 밤 풍경을 잘 표현한 구도와 색상의 조화가 매우 뛰어나다.” 고 평가하였다.

협의회는 참가한 전체 학생들에게 푸짐한 상품들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장상 상품인 이젤을 비롯하여 대상, 금, 은, 동, 장려상에 각각 대형 아트셋트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트로피, 메달 외에도 한아름씩 상품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가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순용 회장이 이끈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는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를 끝으로 2016-17년도 공식적인 협의회 행사를 모두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관력기사 23면 (사진으로 보는 그림그리기 대회)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NAKS-NE, 이하 협의회)가 5월 27일 네이티브에 위치한 코치추에이트공원(Cochituate park)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수상자명단

학년	상	이름	학교
2	전체대상	안예선	북부보스톤
	대상	김지민	보스톤 장로교
	1등	오윤서	보스톤 장로교
	2등	김해율	우스터
	3등	신동준	뉴잉글랜드
PS/PK	장려상	정시원	보스톤 장로교
	장려상	양준오	우스터
	대상	장서빈	보스톤 장로교
	1등	최예진	천주교
	2등	윤창민	북부보스톤
K	장려상	최이린	보스톤 장로교
	장려상	황솔	천주교
	장려상	이 지아	퀸지
	장려상	정태준	보스톤 장로교
	장려상	이슬주	한마음
1	대상	최서연	한마음
	1등	박아름	보스톤 장로교
	2등	박단비	뉴잉글랜드
	3등	염희지	퀸지
	장려상	유단우	천주교
2	장려상	류하람	북부보스톤
	장려상	양우영	우스터
	장려상	김태라	뉴잉글랜드
	장려상	전주 채	뉴잉글랜드
	장려상	공도훈	뉴잉글랜드
3	대상	유세오	천주교
	1등	이예나	우스터
	2등	김민재	우스터
	3등	김민준	우스터
	장려상	헤이워드 브라운	우스터
4	장려상	김민준	우스터
	장려상	최예린	천주교
	대상	황준	천주교
	1등	송연	뉴잉글랜드
	2등	공재현	뉴잉글랜드
5	2등	이상광	퀸지
	3등	이준	퀸지
	3등	신동준	뉴잉글랜드
	장려상	정재우	천주교
	장려상	백예린	천주교
6	장려상	권준	천주교
	장려상	백종우	천주교
	장려상	류하람	북부보스톤
	장려상	김예린	한마음
	장려상	문주원	한마음
7	장려상	정승현	우스터
	장려상	전술건	우스터
	장려상	안소연	우스터
	장려상	이해진	보스톤장로교
	대상	박한별	보스톤 장로교
8	1등	김서연	로드아일랜드
	2등	김나영	우스터
	3등	최정우	천주교
	장려상	박국영	퀸지
	장려상	최수영	한마음
9	장려상	안예지	북부보스톤
	장려상	최하은	우스터
	장려상	티아 마이어	우스터
	대상	문여원	한마음
	1등	이수연	뉴잉글랜드
10	2등	권지혜	천주교
	3등	김태진	뉴잉글랜드
	장려상	백예나	천주교
	장려상	홍종시	천주교
	장려상	이상산	퀸지
11	장려상	김효린	한마음
	장려상	이슬학	한마음
	장려상	허예은	천주교
	대상	송윤	뉴잉글랜드
	2등	전술민	우스터
12	3등	이동건	우스터
	대상	류기연스	우스터
	1등	염정아	퀸지
	2등	이지은	보스톤 장로교
	3등	정다현	우스터
13	3등	최하영	우스터
	대상	이진	퀸지
	대상	박형은	뉴잉글랜드
	1등	황선유	뉴잉글랜드
	2등	이민상	뉴잉글랜드
14	대상	김유경	퀸지
	장려상	김동영	퀸지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이지 않는 아시안 중 한인사회는 더 보이지 않아

▶▶1면에 이어서
의 지적과 일맥상통 한다.

최 회장은 “아시안은 수에 걸맞는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underrepresented). 재계, 정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아시안 대표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최고위층에서 아시안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모델 마이노리티(Model minority)>란 단어가 아시안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용어는 우리가 만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라고 못박고 “이 단어는 다른 유색인종들과 아시안을 격리시키기 위해 ‘사용’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수잔 범프 주 감사

발부 차관이 참석했다. 아시안계 테키첸, 도널드 워그 주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외국 공관장으로는 보스턴 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와 신임 로쿠이치로 미치 일본 총영사가 외국 공관 대표로 참석했다.

유니티 디너 수상자로 보아 뉴게이트씨가 커뮤니티 히어로 상을 수상했다. 보아 뉴게이트씨는 사우스이스트 아시안연합(SEAC)의 정신건강문화케어프로그램의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청소년 베트남어프로그램, 사자춤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역할을 했다.

또한 차이나타운에서 이민자 영어교육, 이민자 법률상담, 이민자 직업교육 등을 담당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민간협회(AACA)의 매리친 이사회 부회장이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사진예술가 이든 황씨는 재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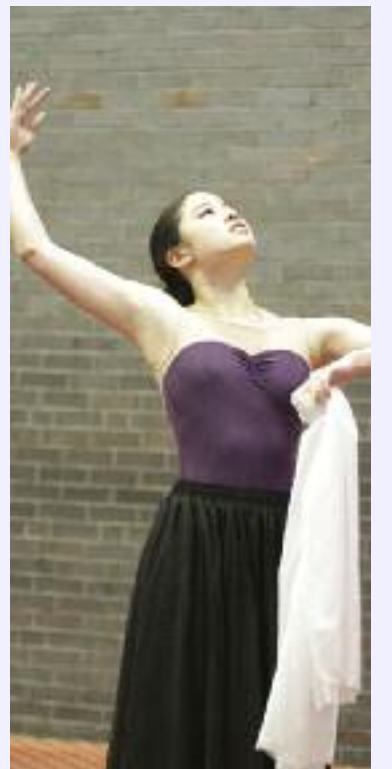
약 500여명의 참가자 중 한인참가자는 손에 꼽을만 했다. 매년 1개 테이블 기부를 맡아 참석하고 있는 시민협회 이경혜 회장 부부, 김성군 이



(사진 좌로부터) 김병국 예술협회장, 김영희, 엄성준 총영사, 페네티 더플러 전 판사, 수잔 범프 주 감사, 로쿠이치로 미치 일본 총영사, 이경혜 시민협 회장, 김성군 이사장, 민동 씨



평생 업적상을 수상한 매리친 AACA 이사회 부회장



BU 버지 덴스 컴퍼니의 중국 전통 무용



드보라 골드버그 주 재무장관

11번째 맞는 아시안 유니티 디너에는 주 재무장관 드보라 골드버그, 주 감사 수잔 범프, 그리고 법무차관 에이프릴 잉글리쉬 등 정계 인사가 참여해 5월 아시안의 달을 기념하고 아시안들의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주지사 또는 부주지사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아시안으로 주정부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남팜(Nam Pham), 매사추세츠주 경영개

사장 부부, 김병국 예술협회 회장 등이 한인을 대표했다. 보이지 않는 아시안 중에서도 한인사회는 더 보이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AAC)는

주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시안옹호단체다. 다만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원은 전혀 없다. 위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지만 위원장은 주지사, 재무부장관, 감사, 법무장관, 하

원의장, 상원의장의 추천으로 지명된다. 한인 위원은 엘리사 최 회장을 비롯 이경혜, 월터김 위원 등 3명이 재직 중이다.

hsb@bostono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여행명소 5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여름이 찾아오는 6월부터 뉴잉글랜드의 여행 시즌이 시작된다. 이 지역의 다섯개 도시가 지난 주 발표된 '미국 내 여름 여행지 50곳'에 랭크되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여행 가이드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호텔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의 예약현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을 선정한 것이다.

메인 주의 바 하버는 4위에 랭크되면서 뉴잉글랜드 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로 올랐다. 아카디아 국립공원(Acadia National Park)의 공식 주소인 이곳은 숲과 호수와 바다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의 풍성한 휴식을 제공한다. 사막의 섬(Mount Desert Island)이나 썬더 홀(Thunder Hole)과 같은 대자연의 명소들을 탐험할 수도 있고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차를 타고 공원을 둘러볼 수도 있다. 고래와 물개 서식처를 둘러보는 웨일 위치나 민물 낚시로도 유명하다.

7위에 랭크된 오건퀴트(Ogunquit) 또한 메인 주에 위치하고 있다. 대서양의 맑은 바다를 끼고 있는 오건퀴트에서는 퍼킨스 코브(Perkins Cove)나 가장자리 길(Marginal Way)을 따라 아가자기한 바닷가 마을을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미술 박물관(Ogunquit Museum of

American Art)에서 전시를 보거나 오건퀴트 극장(Ogunquit Playhouse)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뉴햄프셔주의 노스 콘웨이에는 17위에 올랐다. 칸카마구스 하이웨이(Kancamagus Highway)를 타고 오르는 화이트 마운틴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그림같은 엔틱 기차길과 각종 가게들로 가득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다운타운이 이곳을 인기 있는 여행지로 만들었다.

21위에는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가 랭크되었다. 존 F. 케네디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름철 백악관'으로 애용했던 이 도시는 부호들의 호화 맨션이 즐비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유럽풍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맨션들을 돌아보는 맨션투어와 바닷가의 벼랑길을 따라 걸으며 야생조류 및 야생화를 감상하는 클리프 워크(Cliff Walk)가 이곳의 여행 필수 코스이다. 변화한 도심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보스톤 또한 여름에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45위에 랭크된 보스톤의 대표적인 여행코스는 에스플라나드를 따라 찰스강변을 산책하고 펜웨이 파크에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걸으며 미국의 역사를 탐방하는 것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뉴욕 센트럴파크 야외공연 '코리아 가요제'

〈고래야〉, 〈쌍쌍〉, 〈이어오브디옥스〉 등 그룹 출연
6월 26일 월요일 '서머 스테이지' 메인 공연장 진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6월 26일 월요일 '코리아 가요제(Korea GAYOJE)'가 열린다. 뉴욕의 최대 야외공연 페스티벌인 '서머 스테이지'의 한 행사로, 이 페스티벌에서 한국 가요만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센트럴파크 내 메인 공연장인 '럼지 프레이필드'에서 열리는 '서머 스테이지'는 뉴욕시 공원재단이 1987년부터 주최해 올해로 31회째다.

뉴욕 시 전역의 16개 시립공원에서 팝, 록, 재즈, 블루스, 힙합, 오페라 등 음악, 무용, 서커스,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뉴욕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행사다.

'코리아 가요제'의 무대는 서로 다른 색깔의 음악 활동을 하는 3개 그룹이 꾸민다. 한국 창작곡악밴드 '고래야'와 '쌍쌍',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힙합 듀오 '이어오브 디 옥스(YOX; Year of the OX)'다.

'서머스테이지'에는 한국 프로 그룹이 과거에 선정된 적도 있었으나, 한국 아티스트들이 메인 스테이지인 센트럴 파크 내 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일은 지난 30년 역사상 최후이다.



코리안 아메리칸 힙합 듀오 '이어오브 디 옥스(YOX; Year of the OX)'

'고래야'는 전통악기인 거문고, 대금, 장구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 월드 퍼커셔니스트로 구성된 6인조로, 로큰롤, 포크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다. 2012년 KBS TV '탑밴드2'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16강 본선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쌍쌍'은 올해 초 뉴욕 최고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글로벌페스트'를 통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뉴욕에 데뷔했다. 뉴욕 타임스등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소리꾼 이희문을 주축으로 기타리스트와 드러머가 한국의 민요를 모티브로 한 글램 록 음악을 선보이는 민요 록밴드이다.

'이어오브 디 옥스'는 미국 힙합계에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래퍼 리릭스와 JL로 구성돼 있다. 서머스테이지 예술감독인 에리카 엘리엇이 관심을 쏟고 있는 떠오르는 뮤지션들이다.

"흑인 래퍼들보다 랩을 잘하는 동양인 래퍼"라 불리는 이들이 2015년 발표한 '세븐 링스(Seven Rings)'는 현재 유튜브에서 140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코리아 가요제'를 공동 주최하는 뉴욕 한국문화원의 한호 디렉터는 "오랜 역사를 갖춘 대표적인 뉴욕 공연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다양한 색깔의 한국 음악들과 한국 문화를 메인 무대에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스탠딩 공연으로, 당일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무료 입장이 시작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MA Best Nail School
5 Stars Review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781.729.8868

shalom DENTISTRY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DSLR 구매 가이드] ① 나에게 어울리는 카메라는?

DSLR 원리 알아야 나에게 맞는 카메라 선택할 수 있어
사용목적, 크기와 무게, 브랜드, 예산 등 복합적 고려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카메라를 사고 싶는데 어떤 카메라가 좋은가요? 카메라를 다루는 기자로서 카메라를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카메라는 최소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라 이 제품이 좋더라는 말만 듣고 큰 생각 없이 덜컥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카메라를 구입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와 그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카메라 생활에서 몇 번이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 왜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는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이다. 렌즈교환식 카메라를 쓰면서 의외로 일반인 사용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RAW 파일의 존재이다. 카메라의 RAW 파일이란 '손실 압축을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 포맷'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는 JPG나 PNG 같은 이미지파일들은 한 장의 종이에 그린 그림과 같다. 즉 가볍지만 (파일의 용량이 작다) 이미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이라 고치기가 어렵다.

반면에 RAW파일은 여러장의 투명한 레이어에 색깔별로 그림을 그려 쌓아놓은 것과 같다. 여러장이 쌓여 있어 무겁지만(파일의 용량이 크다)

편집 할 때는 필요한 부분 한장만 빼서 편집하면 되므로 편집하기 쉽다. 다시말해 RAW파일은 JPG나 PNG 파일과 달리 이미지 파일을 편집할 때 상당히 다양하고 세밀한 편집이 가능해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표현에 있다. 대자연의 한 폭의 그림처럼 담을 수 있는 초광각부터 날아가는 새나 멀리 있는 운동선수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찍는 초망원에 이르기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나 휴대폰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배경을 흐리게 하여 단순화 시키는 아웃 오브 포커싱 기능은 피사체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기능은 카메라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들이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는 가장 큰 구매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렌즈교환식 카메라도 종류가 다양하다
렌즈교환식 카메라는 흔히 DSLR과 미러리스라고 불린다. 둘은 내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DSLR은 '디지털 일안 반사식 사진기(Digital Single-Lens Reflex)'의 약자로 한 개의 렌즈에 들어온 빛이 카메라 안에 삽입된 거울과 펜타프리즘에 반사되는 구조다. 이와 반대로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거울(Mirror)이 없는 (less) 구조로 카메라에서 상당한 크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는 카메라 안으로 들어온 빛을 반사시키는 미러와 펜타프리즘의 유무 여부이다. 이 유무에 따라 카메라의 크기와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기를 차지하는 거울과 펜타프리즘을 제거해 경량화를 이루었다.

디지털 카메라 화질을 결정하는 것은 센서라고 불리는 전자회로다. 필름카메라의 화질이 필름에 좌우되는 것처럼 디지털카메라의 화질은 센서에 좌우된다. 카메라 센서는 그 크기에 따라 35mm형 (36x24mm), APS-C(약 23x15mm), 마이크로 포서드 (3/4, 17.3x13.0mm), 컴팩트(포서드 이하 급, 주로 1인치 이하)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사진의 화질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센서를 가진 카메라가 더 나은 화질을

보이는 편이다.

DSLR은 35mm형과 APS-C 센서를 사용하는데 이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는 각각 풀프레임과 크롭바디로 불린다. 반면 경량화를 경쟁력으로 삼는 미러리스는 DSLR보다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편이며 제조회사별로 주력 센서의 크기가 다르지만 마이크로 포서드 사이즈가 미러리스에서는 가장 유명하다.

앞서 말한 센서의 크기가 사진의 화질을 좌우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카메라가 더 넓은 센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카메라가 클

수록 화질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 비싸며 휴대성이 떨어진다. 풀프레임의 경우 렌즈와 합치면 2kg에 육박한다. 반면 미러리스는 풀프레임보다 화질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800g정도로 가벼우며 컴팩트형의 경우 300g의 제품도 있다. 다시 말하면 화질과 휴대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셈이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카메라 구매에 도움이 되는 카메라 종류별 사용 용도, 제조사별 장단점, 촬영 목적에 따른 추천 모델, 렌즈와 좋은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tshunne@bostonkorea.com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 재무부 주류법안 개정 작업 착수

시민단체들 주류법 더 엄격하게 강화 주장
일반 대중, 비즈니스는 주류법 완화 원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재무부에서 주류(Alcohol)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데보라 골드버그 매사추세츠 재무장관은 주류 업계와 소비자를 모두 혼란스럽게 하는 오래된 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골드버그 장관은 “우리는 금주법 이후로 여기저기 조금씩 손을 댄데 지금까지 왔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21세기에 맞는 주류법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주류법 개정 특별팀을 조직하여 5월부터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별팀은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지 제안을 받고 있다.

주류법 특별팀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가 공공 건강과 관련한 단체들이다. 이들은 너무 빠르게 주류법안이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에 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음주운전과 미성년 음주, 각종 질병 등의 문제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류 관련 법안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는 단체들은 주류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미성년 음주를 막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주류의 광고를 제한하는 등 대중에게 주류가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일요일에 주류 판매를 제한하거나, 식당이나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단체에서도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주류법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주류 업계와 관련 있는 비즈니스 단체들도 주류법 완화를 위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주류법 강화를 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골드버그 장관은 일단 특별팀에게 주류법안 개정을 맡기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주류법안이 더욱 강화될지 완화될지는 재무부에서 의회에 법안을 접수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재무부가 특별팀을 구성하여 주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베이커 주지사와 월시 시장이 합적으로 무료 대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보스톤 무료 대학 프로그램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공동으로 저소득 학생을 위한 무료 대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이 프로그램은 보스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4년 동안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 시장이 합작한 무료 대학 프로그램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보스톤 거주 고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보스톤 브릿지(The Boston Bridge)라고 불리는 무료 대학 프

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펠 그랜트에서 정해놓은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보스톤 브릿지에 등록된 학생들은 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 락스버리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매스 베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준 학사 과정을 2년 반 이내에 마치고, 이후 학사 과정을 위해 주립 대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학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등록금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급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편 피보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yinsurance.com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운전자 도로주차 후 문 오른손으로 열어야"

매스주 교통부 운전면허책자에 조항 삽입 법제화는 아니지만 사이클리스트 보호 차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릴 때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내리는 습관을 권장키로 했다.

교통부는 5월 30일 차량등록국(RMV)이 최근 운전면허책자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문을 여는 "더치리치(Dutch Reach)" 내용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전거탑승자들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여는 차문에 부딪쳐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하차시 오른손으로 문을 여는 관행은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일반화된 표준 관행이다. 이처럼 오른손으로 문을 열게 되면 운전자는 몸을 돌려 백미러를 보게 되고 혹여 다가올 수도 있는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들이 차문을 갑자기 열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부딪치거나 문을 피해 핸들을 틀게 되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큰 부상 혹은 사망에 까지 달하게 된다. 보스톤 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총 202건의 자동차문 사고가 발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교통부는 이번 "더치리치" 캠페인이 결코 법이나 필수요건이 아니라 단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운전자의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됐지만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되지는 않는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5월 30일 차량등록국(RMV)이 최근 운전면허책자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문을 여는 '더치리치(Dutch Reach)' 내용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다. 이번 "더치리치"가 운전면허책자에 포함된 것은 한 자전거 애호가인 끊임없는 풀뿌리 캠페인 노력에 기인했다고 보스톤글로브는 보도했다. 70세의 은퇴한 의사 마이클 차니는 지난해 9월께 더치리치닷오알지(Dutchreach.org)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차니씨가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서머빌 디젤카페의 바리스타였던 아만다 필립스가 인만스퀘어에서 열리는 자동차 문에 부딪쳐 사망한 이후부터다. 그는 자전거 애호가 그룹 그리고 차량등록국과 접촉해 이를 운전면허책자에 까지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리차드 프라이 매사추세츠 자전거 연합 디렉터는 "더치리치 캠페인은 일반적인 자동차 문화에 반영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사거리를 지날 때 양쪽을 쳐다보는 것, 후진할 때 백 미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하는 권장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는 운전자 교육 때 배워야 할 것들이다" 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트럼프 시대라 그리움 더 짙어져'... JFK 탄생 100주년

생가 있는 브루클라인 등 美 전역서 다양한 행사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국인들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 존 F. 케네디(1917.05.29~1963.11.22)가 29일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인지라 매력적인 지도자로 기억되는 케네디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듯하다.

29일 미 전역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USA투데이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우정청은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난 매사추세츠 주 브루클라인(Brookline)에서 새로운 우표를 발행한다. 이를 기념해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케네디 생가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9일 오후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종손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조지프 케네디 3세가 미국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보스톤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도서관 및 박물관에선 미 해군의 에어쇼와 가로*세로 2m가 넘는 대형 케익 커팅 행사가 진행된다. 박물관 측은 100여개의 케네디 유품과 사진 등을 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워싱턴 언론박물관인 뉴지엄(Newseum)에선 케네디 사진전이, 국립문서기록청(National Archives)에선 케네디 대통령 관련 기록 전시회가 열린다.

케네디를 기념하는 책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잇따라 발간됐다. 케네디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의 비전, 영부인 재키 여사의 삶 등 다양하게 다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케네디 대통령의 추모 열기에 대해 사람들이 여전히 케네디의 젊음과 희망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 대통령 역사가인 로버트 달렉은 "케네디에겐 젊음과 희망, 약속이 있었다. 국민들은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yjyj@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북유럽 5개국 정상, 트럼프 '악당' 사진 조롱

노르웨이 총리, 패러디 사진 게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북유럽 국가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풍자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사진은 이날 노르웨이 남서부 항구 도시 베르겐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순방 당시 찍은 사진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수도 리야드에 문을 연 '극단주의 이념 반대 글로벌 센터' 개관식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함께 지구본 위에 손을 얹고 사진을 촬영했다. 지구본에서 나오는 환한 빛으로 인해 정상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젖고, 누리꾼들은 이들이 만화 속 '악당'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의 패러디 사진. (왼쪽부터)데판 뢰벤 스웨덴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에르나 솔버그 노르웨이 총리,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 브자르니 베네딕스 아이슬란드 총리

같다고 묘사해 화제가 됐다. 솔버그 총리가 공개한 사진 속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에르나 솔버그 노르웨이 총리,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 브자르니 베네딕스 아이슬란드 총리가 손을 맞대고 지구본을 잡았다.

솔버그 총리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리야드 대(vs) 베르겐"이라며 "위 사진의 인물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아래 사진은 지속가능한 목표를 두고 공을 잡고 있는 북유럽의 5개국 총리들이다. 우리는 여기에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oho0901@news1.kr

"독일 매우 나빠" 트럼프 미국 비판한 메르켈에 맞불

"무역적자 심각하고 방위비 덜내...앞으로 바뀔것"

(서울=뉴스1) 김해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아침부터 '분노의 트윗'으로 독일을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독일에게 엄청난 무역적자를 지고 있다"며 "게다가 독일은 그들이 마땅히 내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나토와 군에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독일의 이러한 행동이 "미국에 아주 나쁘다"면서 "이는 바뀔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에 AFP통신 등 여러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및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를 마친 뒤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은 다른 국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해야만 한다"면서 "이것은 지난 며칠간 내가 경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도 "근시안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의 이해관계를 해치고 서방 세력을 약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공개 질책했다. 또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주요 유럽 동맹과의 균열 조짐을 보였다.

icef08@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코미 前FBI국장, 다음주 상원 증언 '폭탄발언' 나올까

측근 "트럼프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언할 것" 특검과도 증언 범위 등 사전 조율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 돌연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다음 주 초 상원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한 공개 증언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CNN은 소식통을 인용, 코미 국장이 다음 주 초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한 '폭탄' 혐의를 증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코미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 로버트 무러 전 FBI 국장을 만났다. 그의 증언으로 법적 문제가 얽히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코미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FBI 수사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임 전 수사 외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가 조성된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싶어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코미의 증언은 수개월간 이어진 의혹들 속에서 극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구체적인 증언 일정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중요한 건 그가 증언을 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는 증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jyj@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용직 전통상 대여 (매입, 보유)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질과 성능을 자랑,
 소중한 내 마거에 한국 최고의 미용 보충제를
 저렴하고 무집하게!

• 품질 좋은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양질의 대용도로 만든 가짜 가죽 가방 • 국내산 유기농 사과와 감, 귤, 사과
 • 최첨단 유망한 나비옷대 • 품질 좋은 상사제 세면도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We Help Good Business Become Great

LEE AND YUN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We find more buyers and sellers for you. We also offer a wide range of matching services for several industries. We've got the necessary tools and expertise to help you grow your business, and learn how to properly manage your expansion, or your next project. We partner with our clients to develop engaging marketing strategies, design high quality and scalable solutions, and build rich brand experiences.

781.854.7608(USA) 070.4239.7608(Korea)
www.leeandyun.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베이지북 "美 고용시장 수급 타이트해도 인플레이션 ↓"

"일부 지역, 식품·의류·자동차 등 소비 물가 하락"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경제는 지난 2개월 동안 성장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은 지역과 기업들이 많았다고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후퇴했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31일 정기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의 12개 관찰지역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거나 온건한'(modest to moderate) 성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은 숙련·비숙련 기술 인력의 수가 모두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스턴과 시카고는 성장이 둔화했으며, 뉴욕은 성장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수급이 빠빠했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을 높였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은 기업들이 임금을 10% 높여 숙련 기술 보유자들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에 따르면 비록 노동시장의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

인력 수급이 빠빠해지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수도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약하거나 온건한' 임금 상승 추세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전반적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연준은 물가 압력이 지난달 19일 베이지북과 비교해 거의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목재, 철강, 여타 원자재 등의 가격 급등"은 공급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체들의 공급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료품, 의류, 자동차 등 소비재의 물가가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에너지물가와 농산품 물가는 혼조를 나타냈다. 하지만 판매 가능한 주택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여러 시장에서 부동산 물가는 상승했다.

acenes@yna.co.kr

'인터넷 여왕' 메리 미커 "음성인식·헬스케어 뜬다"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메리 미커의 2017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INTERNET TRENDS 2017)가 나왔다.

1995년 아마존 등의 성장을 예견했던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는 메리 미커를 '인터넷의 여왕'으로 불리게 할 만큼 유명하며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벤처캐피탈 클라이언트 퍼킨스 코펠드&바이어스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해마다 발간되고 있다. 올해는 캘리포니아주 테라리아 리조트에서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리코드(Record) 주최로 열린 '코드 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

31일 발표된 메리 미커의 이번 보고서는 355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돼 여느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처음으로 '헬스케어' 부문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커는 일단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시장 성장세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것.

음성(Voice)이 온라인 쿼리(Quary: 검색엔진에 사용자가 쿼리를 요구하는 것)fmf 대체하기 시작한 점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음성을 통한 쿼리는 전체 모바일 쿼리의 20%를 차지했다. 애플의 시리(Siri), 아마존 에코(Echo)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음성인식의 정확도 역시 약 9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 10년간 미국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 매출 비중 '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기여를 토했고 이와 함께 TV 시청이 현저하고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업가들,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등이 주목하고 있는 게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995년 1억명이었던 전 세계 인터랙티브 게이머들은 올해 26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매출은 지난해 약 1000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이 가장 성장세가 높다.

인터넷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지 않는 곳은 인도. 지난해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는 전년대비 29% 이상 늘었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헬스케어 부문에선 웨어러블(wearable)의 침투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하나라도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은 지난해 12%였으나 현재 약 25%까지 늘었다. 심장박동과 이동 속도 등 자신의 헬스케어 정보를 체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미커는 그리고 이러한 헬스케어 정보의 60%는 구글에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s914@news1.kr

이제 '얼굴이 탑승권'...제트블루·델타항공 시범 시행

다음달 보스턴-아루바 항공편 시행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델타항공과 제트블루가 탑승수속 절차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 탑승권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ABC뉴스가 1일 보도했다.

제트블루는 다음 달부터 보스턴에서 출발, 아루바의 퀸 베아트릭스 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체크인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탑승객이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를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는 여권 또는 비자 사진과 비교하고, 컴퓨터를 통해 신원이 일치되면 여권 없이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얼굴인식 탑승 시스템은 이용객이 몰린 공항에서 탑승수속 간소화를 위해 도입됐다.

델타항공은 현재 로널드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 마일리지 회원들에 한

해 라온지 출입시 지문인식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탑승수속을 위해 얼굴인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KLM항공도 지난 2월부터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얼굴인식 탑승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lch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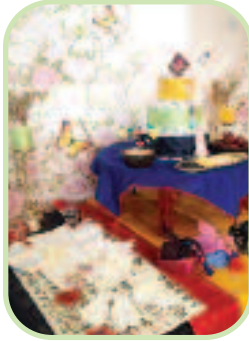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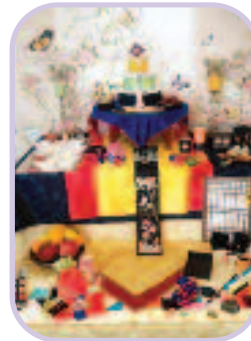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초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HURAM | 건강검진
Med.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H+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도약한 H+ 양지병원은 350 병상 확충과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 우수전문의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남성 포함	여성 포함
<p>60만원 → 65만원 / 남: 65만원 / 여: 75만원</p> <p>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p> <p>1. 혈액검사(생화학, 비뇨, 지질, 효소) 2. 흉부 X선(순환기계 검사) 3. 영역 검사(중추신경계 검사) 4. 암표지자 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5.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6. 대동맥 경화증 7. 골밀도 검사 8. 소변검사(이뇨, 단백뇨, 혈당, 신기능) 9. 흉선 및 췌장암 검사</p>	<p>남성 포함</p> <p>1. 흉부 X선 CT 2. 경동맥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동맥 경화증</p>	<p>여성 포함</p> <p>1. 골밀도 초음파 2. 유방대조영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반 X-ray 5. 대장내시경수술</p>

VIP 입원 종합검진

	남성 포함	여성 포함
<p>230만원 → 240만원 / 남: 215만원 / 여: 225만원</p> <p>VIP 종합검진 기본항목</p> <p>1. 7종 검사(생화학, 비뇨, 지질, 효소) 2. 흉부 검사(순환기계 검사) 3. 영역 검사(중추신경계 검사) 4. 암표지자 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5.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6. 대동맥 경화증 7. 골밀도 검사 8. 소변검사(이뇨, 단백뇨, 혈당, 신기능) 9. 흉선 및 췌장암 검사 10. 대장내시경수술 11. 유방 및 췌장암 검사</p>	<p>남성 포함</p> <p>1. 뇌 MRI 2. 뇌 MRI 3. 경동맥 CT 4. 흉부 X선 CT 5. 심전도 초음파 6. 경동맥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유방대조영 초음파 9. 골밀도 검사 10. 대장내시경수술</p>	<p>여성 포함</p> <p>1. 뇌 MRI 2. 뇌 MRI 3. 경동맥 CT 4. 흉부 X선 CT 5. 심전도 초음파 6. 경동맥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유방대조영 초음파 9. 유방 초음파 10. 골밀도 검사 11. 대장내시경수술</p>

당일 종합검진

	남성 포함	여성 포함
<p>55만원 → 65만원 / 남: 50만원 / 여: 60만원</p> <p>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p> <p>1. 혈액검사(생화학, 비뇨, 지질, 효소) 2. 흉부 X선(순환기계 검사) 3. 영역 검사(중추신경계 검사) 4. 암표지자 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5.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6. 대동맥 경화증 7. 골밀도 검사 8. 소변검사(이뇨, 단백뇨, 혈당, 신기능) 9. 흉선 및 췌장암 검사 10. 대장내시경수술 11. 유방 및 췌장암 검사</p>	<p>남성 포함</p> <p>1. 흉부 X선 CT 2. 경동맥 초음파 3. 골밀도 검사</p>	<p>여성 포함</p> <p>1. 골밀도 초음파 2. 유방대조영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반 X-ray</p>

VVIP 입원 종합검진

<p>남: 350만원 / 여: 370만원</p> <p>VVIP, VIP 종합검진 고객 : 픽업서비스 제공</p> <p>※ 입원비용 제외 : 입원비용 도착시간 이후 3시간까지 제공 ※ 입원비용이 아닌 사용자에 대한 진료비용이 아닌 검사료, 약, 의료비 직접 진료비용</p>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예약)
- 입원 종합검진: 3pm~입원2일째 1pm(1박 2일) 1인실/2인실/3인실, 4인실
- 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 2일) 1인실/2인실/3인실, 4인실 / 골밀도업
- V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2박 3일) 1인실/2인실/3인실, 4인실 / 골밀도업

靑, 사드 진상조사 속도전 속 '배치결정'까지 대상 확대?

어제 한민구·김관진 조사...與 윤병세·황교안 등도 거론
文대통령 "처벌이 방점 아냐"...책임론 제기 관측엔 '선긋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1일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는 분위기다. 조사 대상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넘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날 저녁엔 한 장관과 김 전 안보실장을 모처에서 조사했다.

이 중 김 전 실장은 지난 21일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며 교체됐고, 지난달 26일 벌어진 국방부의 '보고누락' 사태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아 청와대의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

안보 총책으로 꼽히는 인사로,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를 앞두고 2차례나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국방부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 달 28일엔 정 실장과 오찬을 하며 관련 대화도 나눴다는 점에서 김 전 실장과는 경우가 다소 다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 진상조사가 전임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온 점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디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밝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이번 조사에서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고리로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 배치 결정과정 문제 로까지 시선을 돌릴 경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이 조사선상에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 전 총리는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할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 황 전 총리와 김 전 실장, 한 장관과 윤 장관 등을 청문회 증인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가 '중간발표'를 전날 한 차례 했고,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일단 마친 만큼 앞으로 '강공'을 이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

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미정이고 결과브리핑 또한 없다"고 했다. 전날과는 달리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전날 오후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한 장관에게도 오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계획대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2일 출국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군 수뇌부 경질 혹은 인사조치 등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뚜렷이 선을 긋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 문제는 (보고 누락)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점이 있다"며 "처벌에 방점을 두고 시작한 것이 아니니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달라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smith@news1.kr

정의용 "사드조사 한미동맹 영향없다고 美에 설명했다"

오늘 美로 출국... "한미정상회담 일정·의제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상회담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실장은 전날 외교부 경로를 통해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배경과 관련 지시가 국내적 조치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미연합사령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정 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반입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봐달라. 아마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방미 목적과 관련 "6월 하순경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대체로 확정 짓고 와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이 별

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 좀 서둘러 떠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문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방문"이라며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정상간의 긴밀한 우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특정 이슈에 관한 합의 도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두 정상이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정상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확대 발전 방안, 북핵 해결 방안을 두고 심

도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법근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궁극적 목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은 보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준비기간이 짧아서 효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하나의 고려사항"이라고 답했다.

kukoo@news1.kr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범계 "본질은 '사드 4기반입' 의도적으로 제외해 보고한 것"

(서울=뉴스1) 박운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4기 반입 사실이 알려진 사실이나가 아니라 보고대상에서의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에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관련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여부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삭제한 행위의 문제점을 덮어주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있어 핵심 가치는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설에 있는 것이고 국보법

상의 기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닌 이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 안보라인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의당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알려진 사실'을 드는 것은 대통령이 알려진 사실 여부까지도 조사해야 하는 업무를 대통령께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달 31일 국방부의 재보고를 받고 보고 누락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pej86@news1.kr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NE 2 - JUNE 8,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HANDMADE FISH CAKE, JUST LIKE MOM'S.

휴거소에서만 맛볼수 있던 핫바를 이제 H마트와 함께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집에서 만들기에 각자 기호에 맞춰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간식, 핫바! Seafood cake stick is one of the most beloved street foods in Korea. Treat yourself whenever, wherever you want with this easy homemade recipe!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Ginger 생강 \$1.29 lb	Korean Melon 참외 \$16.99 box	Gobo 우엉 \$1.99 lb	Dragon Fruit 드래곤 플러트 \$3.99 lb	Kabocha 단호박 \$0.99 lb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4 - 16oz./pkg \$0.99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1.99 lb	Fuji Apple 후지 사과 \$1.29 lb	Lotus Root 연근 \$1.88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	Sliced Beef Bone-in Hind Shank 배있는 아롱사태 \$4.99 lb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1.99 lb	Beef Chuck Eye Roll Steak 등심 스테이크 \$9.99 lb
Sliced Beef Chuck Flap/Tail 삼치살 구이 \$12.99 lb	Marinated Pork Sliced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4.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통통베이 바지락살 1 lb./pkg \$5.99	Yellow Tail 방어 \$1.99 lb
Milk Fish 밀크 피쉬 300g \$2.99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6.99 lb
Norwegian Mackerel 고등어 \$2.99 lb	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 황합어 \$14.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CHORIPDUNG 5 Num Whole Grain Brown Rice 초립통 5분도 대립미를 백미처럼 15 lb. \$19.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oz x 10ea/box \$9.99
KWANGCHUN Green Tea Seaweed Laver 광천 농림 녹차김 0.7oz x 10ea/box \$9.99	청정원 순장 현미 대량조 쌀고추장 CHUNGJU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 6.8 lb. \$10.99

REALLY BIG SALE

ENJOY GREAT TASTING CHUNGJUNGONE PRODUCTS AT UNBEATABLE PRICES.

HMART에서 준비한 청정원 무용선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청정원 최고의 제품들을 맛보고 특별세일가로 구입하세요.

AT HMART BURLINGTON Until JUNE 8TH, 2017

DAMPA Soba Sauce 단야 소스 10.7oz. \$3.99	PENGUIN Canned Boiled Mackerel/Mackerel Pils 펄린 고등어/꽃치 푸코칩 14oz \$2.5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국산 면 1.3 lb. \$2.5	HAOREUM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해오름 메밀국수 3 lb. \$3.99	HAOREUM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멸란소 2.2 lb. \$19.99
CI Bibigo Dumplings 디 비비고 만두 Crapy Potstickers - 2 lbs. Classic - 1.75 lb. \$6.99	CHUNGJUNGONE Dumplings 10 Pcs. 1.5oz/10ea/box, 2oz \$6.99	PULMUONE Cold Noodles 풀무원 냉면 All varieties - 22oz - 36oz. \$4.99	HAOREUM Fresh Cold Noodles 해오름 냉면 All varieties 1.3 - 2.2 lb. \$3.99	OH-SUNG Yes Chips 오성익스 치즈 만능 떡까지 25개입 All varieties 1.15 lb. \$9.99
SCOTT Extra Soft Tissue 스캇 화장지 1300/1pk \$4.99	HAOREUM Aloe Vera Drink 해오름 알로에 드링크 All varieties 7.5 oz./10ea \$2.5	Plastic Washing Bowl for Rice 일분 쌀 씻는용 대야 \$2.99	MORAK Bamboo Charcoal 모락 비베규용 숯 (대나무 비베규) 4-5인용 \$5.99	MORAK Bamboo Charcoal 모락 비베규용 숯 (대나무 비베규) 6-8인용 \$8.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2017 H MART BURLINGTON STORE. 3 (No Coupon) Burlington, MA 01803/TEL: 781-321-4370/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李총리, 취임 다음날 국회 찾아 소통...책임총리역 다짐

국민의당 등에 감사 인사...文대통령 공약 '추경' 협조 당부

(서울=뉴스1) 이후민, 김정률, 성도현, 박승주 기자 =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 취임 다음날 바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는 '소통행보'를 보였다.

이 총리는 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협치'를 당부하는 한편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 전날(5월31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40석의 국민의당이 대부분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총리로 임명되는데 국민의당이 큰 경륜을 가지고 물꼬를 터준 것에 감

사하다"며 "박 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있었기에 그나마 문재인정부가 크게 늦지 않고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주문한 책임총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한결 같이 요구한 책임총리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총리, 책임총리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여망이 강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책임총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막걸리 회동' 등 비공식적인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리는 "꼭 정해진 회의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소통도 많이 하려

고 한다"며 "총리공간이 역사상 막걸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 의장과 정당 지도부들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상대방을 지켜세우는 등 '낮은 자세'로 면담에 임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총리는 '우군'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등과 만나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일을 그때그때 상의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오늘 (정 대행이) 지방일정이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이 전날 인준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데다 정대행이 여야정 협의체 등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치의 협로가 예고돼 이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회 방문에 앞서 이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을 찾았다. 이 총리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황

인무 국방부 차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안으로 公正(공정)하고 밖으로 堂堂(당당)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고 적었다.

이후 현충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과 의견을 경청하고 "잘 챙기겠다"라고 화답했다. parksj@news1.kr

靑, 정국경색에 인사 속도조절?...국정공백에 불가피론도

사드 보고 · 여야정 협의체 난관 · 후보자 의혹 등 '철저한 검증' 속 6월 중순까지 인선 마무리 관측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이 확정되면서 인사발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가 정국 경색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발표는 오늘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전날(31일) 국회에서 이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및 공식 취임식까지 이어진 만큼, 이르면 이날(1일) 추가 인사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청와대는 전날 일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총리가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되면서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지명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기류를 살피는 분위기다.

현재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조사를 받았다. 한 장관은 문구 삭제 지시나 은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이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치'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총리 임명동의안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이 인준을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공식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앞서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지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후보자에 대한 의

혹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사발표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내정이 철회됐다고 전했다. 안 내정자는 청와대로 출근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었다.

다만 국정공백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만큼, 인사발표에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청와대 및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인사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cho11757@news1.kr



정외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 1차장 서동구, 2차장 김준환, 3차장 김상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 대북 담당)에 서동구 주 파키스탄 대사(62), 2차장(국내 담당)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55), 3차장(과학기술 담당)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55)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1·2·3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발탁된 인사들은 모두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다.

서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미대사 공사, 통일연

주파키스탄대사관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국정원 지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아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는 전날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준 표결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의 보고로 절차가 완료된다.

kukoo@news1.kr



1일 임명된 서동구(왼쪽부터) 국가정보원 1차장, 김준환 2차장, 김상균 3차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Residential



Single Family

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

Residential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Commercial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LISTINGS

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
 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 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Commercial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Commercial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Commercial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Commercial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Commercial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정유라 두 번째 검찰 소환...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이대 비리 등 조사...崔씨 있는 남부구치소서 첫날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1일 검찰에 재차 소환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유치 중인 정씨를 이날 오전 9시쯤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맡을 예정이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부수적인 수사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한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전날 오후 2시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4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압송됐다.

첫날 조사는 정씨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자정에 마무리됐다. 정씨는 조사를 마치고 1시간40분여간 조서를 열람한 후 검찰청 차량을 통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서울 남

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정씨의 체포기한은 2일 새벽 4시8분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새벽 4시8분쯤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26편 기내에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 비리 외에 삼성 뇌물수수, 최씨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등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관계를 지근거리에서 봐 온 만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술을 내놓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새로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왼쪽)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정씨는 귀국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

하는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며 주요 혐의들을 부인한 바 있다.

dosool@news1.kr

교육농단' 최순실 징역 7년 구형...6월23일 선고

檢 "崔, 거짓말 일관"...최경희 5년·남궁곤 4년 구형 崔 "유라는 그리 나쁜 아이 아냐...관용 호소"

(서울=뉴스1) 문창석, 김일창 기자 =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딸에 대해 "그리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대리수강을 기획한 의혹이 있는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 박충근 특검보는 "학교 측은 오직 한 명(정씨)을 위해 조직적이고 비상식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기에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선실세와 그 위세에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최씨 등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사건의 공판이 종결될 때까지도 거짓 변명을 하는데 급급해 보이고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며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날 귀국한 정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3시16분쯤 덴마크 현지에서 강제송환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정씨는 곧바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오늘 우리 딸이 먼 길을 돌아와 가슴이 아픈데, 정치적인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는 모양"이라며 "언론의 비난이 심하자 사춘기라 SNS에 심하게 말을 한 것이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아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았으며 제가 이대에 유라를 특별히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유라를 용서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유라가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최 전 총장은 "총장 취임 후 이화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고 싶어 앞만 보고 일을 했다"며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살면서 누구에게 부당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23일 재판을 열고 최씨 등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

혔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뒤 흔들며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승마특기자로 합격하도록 하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본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 전 처장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본다.

남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결국 전국 면접자가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 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themoon@news1.kr



최순실 씨(61)

"정유라, 교묘하고 괴팍한 인물"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귀국으로 '국정농단 사건 시즌 2'가 시작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을 추적한 '끝나지 않은 전쟁'을 펴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정유라의 귀국일인 31일 울산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북토크쇼에서 "국정농단의 시작은 정유라의 승마문제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유라의 귀국은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집요한 추적기를 다룬 '끝나지 않은 전쟁'을 펴낸 안 의원은 앞서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비리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제기로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로 활동하며 '최순실 저격수' 로서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최근 알게 된 사실인데 2014년 4월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있을 무렵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안민석이 지역구 모회사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정유라 승마의혹 제기를 할 무렵인데 두달이 지난 뒤 곧바로 이런 지시내용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모회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다면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박근혜 최순실이 아닌 바로 내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조사와 이를 위한 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11월까지 50개 지역을 돌면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고자 북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유라는 분명히 최순실의 숨겨둔 재산의 거의 과약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여기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독일 현지 최순실 추적을 다룬 영상이 흐른 가운데 깜짝 게스트로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씨가 무대에 올랐다.

노씨는 이날 코펜하겐 공항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할 당시 스마일 무니가 그려진 하얀티셔츠를 착용한 정유라를 두고 "상당히 교묘하고 괴팍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유라"라며 "귀국 인터뷰에서 보인 영뚱한 미소처럼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bynaieil@news1.kr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45일 만에 국내 검찰에 송환된 3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북토크쇼에 앞서 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 사인회를 가지고 있다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CHA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웨이팅 리스트 오픈

2017년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케임브리지주택공사(CHA)는 노인 및 장애인 퍼블릭하우징의 웨이팅리스트 온라인 예비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최초 로터리 기간: 2017년 7월 5일부터-7월 31일

6월에 받은 예비신청서는 케임브리지주택공사(CHA)가 이를 보관했다 7월 31일 이후 웨이팅리스트에 있는 포지션에 배당할 것입니다. 전자 로터리는 무작위로 생성한 예비 신청서의 일시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이후에 선호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선호조건에 관한 정보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이후에는

7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예비신청서는 일시에 따라 순서대로 접수되며 우선 순위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 적용받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주택 공사는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 연령, 장애, 성 정체성, 성적 기호, 혼인여부, 가족 신분 등에 기초해 차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서비스 및 각종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계소득 자격조건

공공주택에 자격조건이 부합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가족수에 바탕을 둔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Person	2 People	3 People	4 People	5 People	6 People	7 People	8 People
\$54,750	\$62,550	\$70,350	\$78,150	\$84,450	\$90,700	\$96,950	\$103,200

예비신청서 접수시간 및 랩탑 장소

만약 컴퓨터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는 한인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LOCATIONS	DATES	TIMES
LYNDON B JOHNSON APARTMENTS 150 Erie St Cambridge, MA	July 5th, 18th, 31st	10am-1pm
MILLERS RIVER APTS 15 Lambert St. North Cambridge, MA	July 6th, 17th	10am-1pm
RUSSELL APARTMENTS 2050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July 12th, 27th	3pm-4pm
BURNS APARTMENTS 30 Churchill Ave Cambridge, MA	July 13th, 28th	9am-12pm

예비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cambridge-housing.org/waitlist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요청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요청하려면 주택공사 (617-520-6406)로 전화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文대통령 "적절한 시기 국회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할것"

모두발언 없다→있다 반복속 사드 논란 언급은 없어
"가야사 복원 지방정책 포함해야...영호남 벽허물 사업"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인사와 별개로 중요한 게 일자리 추경이다.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데 그에 앞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일자리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 부분은 정책실이 중심이 돼야 할 텐데 오프라인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국민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 힘으로 국회를 또 설득하자"며 국회 시정연설 등 기회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의 모두발언에선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는 당초 모두발언 없이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가 회의 시작 30분 전 다시 하기로 해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국면과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라면서 '가야사' 연구 및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야사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영호남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

업이라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 부분을 꼭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며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보니 그 이전 역사가 연구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는 신라사에 덮혀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야사가 경남 중심이고 경북까지 조금 미친 역사라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 삼진강 주변 광양만·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어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놓치면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 충분히 반영되게끔 해달라"고 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부했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취임에 대해선 "인준과정에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시일 안에 인준된 것 같다"며 "그만큼 본인 흠결이 적었기도 하지만 국회에서도 새 정부 국정이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총리가 인준됐으니 제가 약속한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 최대한 협조해달라"

며 "일상적 국정과정은 총리가 하나갈 수 있게 최대한 총리실로 연결해주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큰나무' 배지가 배포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를 옷깃에 달았다. 배지는 전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비서관이 각 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mith@news1.kr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일자리 창출기업에 혜택

이용섭 일자리총 부위원장 '100일 계획' 발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정규직 전환 로드맵"

(서울=뉴스1) 한중수, 박정환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선발을 시작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시동을 걸고, 현재 6000원대인 최저임금 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있는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100일 동안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게 8월까지 투자·고용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재설계한다. 또 조세감면 신설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TF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노사 협의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그 첫 단계로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관련 비용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등의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도 진행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고 (www.jobs.go.kr)도 이달 중 설치한다.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반도 연장한다.

또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유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엔 공공입찰시 감점을 부여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 추진과 함께 여의치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kul@news1.kr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일호 "일자리 창출 추경으로 내수활성화·민생안정 견인"

한수원 "개발사업 실시계획 미승인에 설계 중단"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최근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2차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추경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 주요 사업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이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격차 완화와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계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올해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충당해 추가 국채발행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남은 돈이라고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며 "추경 특징을 감안해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는 것을 언급하며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재정정책자문회로 그동안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정책 제안부터 따듯한 충고까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두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news1.kr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그림그리기 대회 이모 저모

비온 후, 활짝 개인 날씨 속에 열린 행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천주교 한국학교, 퀸지 한국학교, 한마음 한국학교 등, 이 지역의 8개 한국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가



9학년 대상 박형은



3학년 대상 황준



5학년 대상 문여원



K대상 장서빈



PK 대상 김지민



4학년 대상 박한별



7학년 물기아담스



1학년 대상 최서연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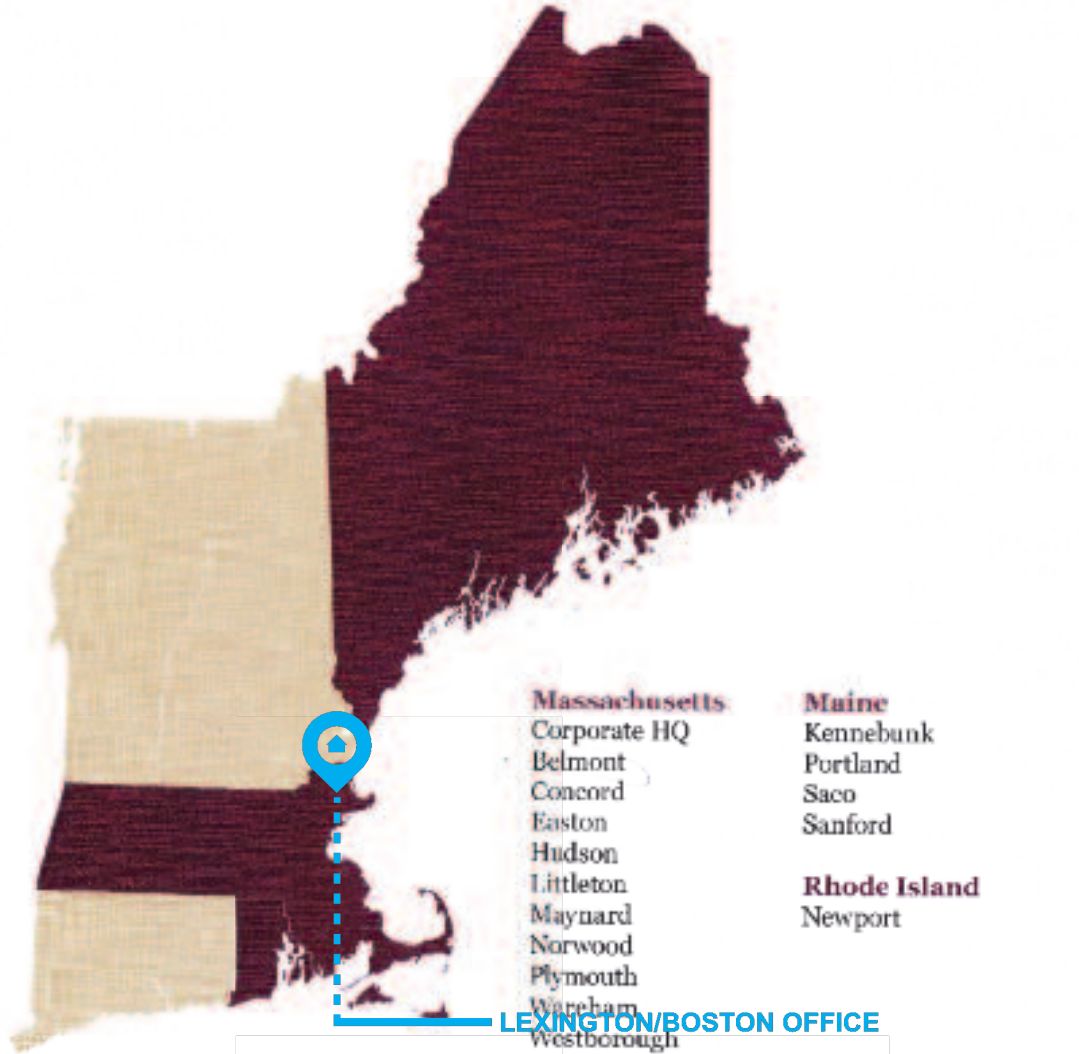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OFFICE LOCATIONS



- | | |
|----------------------|---------------------|
| Massachusetts | Maine |
| Corporate HQ | Kennebunk |
| Belmont | Portland |
| Concord | Saco |
| Easton | Sanford |
| Hudson | |
| Littleton | Rhode Island |
| Maynard | Newport |
| Norwood | |
| Plymouth | |
| Wareham | |
| Westborough | |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prime.com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Ayla Yildi
781.249.4872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가장 많이 향상된 패트리어츠 포지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대부분의 NFL 팀들에게 오프시즌은 로스터를 더욱 강화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샐러리 캡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준급 선수들만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로스터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패트리어츠처럼 수퍼볼 우승을 한 뒤에 로스터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미 수퍼볼 우승을 할만한 로스터를 더 향상시킨다는 것이 어렵고, 그 정도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는 지난해 수퍼볼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수퍼볼을 노리고 있다. 이번 오프시즌 기간에 가장 많이 향상된 패트리어츠의 포지션을 살펴보자.

타이트 엔드

이미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랍 그롱코스키가 있는 타이트 엔드 그룹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그롱코스키가 부상에서 회복되고 컨디션을 100%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패트리어츠의 타이트 엔드 포지션은 리그 최고로 꼽힐 것이다.

지난 시즌 그롱코스키는 부상 때문에 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25개의 패스를 받는데 그쳤다. 그롱코스키는 결국 등 수술 때문에 시즌 중반에 엔트

리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다행히 그롱코스키는 순조롭게 수술을 마치고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 중이다.

게다가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을 끝으로 팀을 떠난 마텔러스 베넷을 대체하기 위해 드웨인 앨런을 영입했다. 경력만 놓고 본다면 앨런은 아직 베넷만큼의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앨런은 신체 조건이 좋고 베넷보다 젊은 선수다.

패트리어츠는 일종의 보험으로 제임스 오셔네시를 트레이드로 얻었다. 그롱코스키와 앨런 다이내믹 듀오가 활약하고 보험까지 있는 패트리어츠의 타이트 엔드 포지션은 결점이 없어 보인다.

코너백

패트리어츠 세컨더리는 지난해 상당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사실 패트리어츠의 패스 커버리지는 지난해 리그 1위였다.

전반적으로 코너백 포지션은 크게 손볼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패트리어츠는 주요 선수를 추가로 영입했고, 그 효과는 이번 시즌에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패트리어츠는 빌스 출신의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와 5년-6천 5백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이미 패트리어츠에는 말콤 버틀러가 있기 때문



브랜던 쿡스의 영입으로 패트리어츠의 패스 공격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에 패트리어츠는 리그 최고 수준의 첫 다운 코너백을 2명이나 둘 수 있게 되었다.

버틀러만으로도 패트리어츠는 상대 팀의 스타 리시버를 경기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수준급 코너백 2명이 리시버들을 전담한다면 올해 패트리어츠의 상대팀들은 패스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와이드 리시버

올해 오프시즌 최고의 이슈이자 패트리어츠가 영입한 최고의 선수는 브랜던 쿡스다.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을 포기하고 쿡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는데, 쿡스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이미 패트리어츠에는 줄리언 에들먼, 대니 아멘돌라, 말콤 미첼, 크리스 호건 등의 와이드 리시버들이 있다. 여기에 쿡스까지 합류할 것이다.

패트리어츠에 단순히 리시버들만

많은 것이 아니다. 각각의 선수들이 저마다 특유의 기술과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에서 수비하기가 까다롭다.

그리고 패트리어츠에는 무엇보다 수퍼볼 우승 반지를 5개나 보유한 쿼터백 탐 브래디가 있다. 브래디가 리시버들의 장점을 극대화 한다면 경기장에서 패트리어츠의 패스 공격은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jsi@bostonkorea.com

U-20 월드컵 한국, 포르투갈에 1-3 완패...8강 진출 좌절

(천안=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이 포르투갈에 막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8강 진출이 무산됐다.

한국은 30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대회 16강전에서 1-3으로 완패했다.

지난 2013년 8강에 올랐던 터키 대회 이후 4년 만에 본선에 출전한 한국은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다시 한 번 8강에 도전했지만 16강 탈락의 쓴 맛을 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조별예선을 포함해 총 4경기를 치러 2승 2패, 6득점 5실점을 기록했다.

1989년, 1991년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포르투갈은 지난 2015년 뉴질랜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8강에 올랐다. 포르투갈은 오는 6월 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코스타리카전 승자와 격돌한다.

한국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다. 포르투갈의 왼쪽 풀백 유리 히베이루가 오버래핑을 한 뒤 문전으로 낮게 보낸 공이 한국 수비수들 사이로 빠졌고 이 공을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다스가 왼발로 바로 슈팅,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한국은 오른쪽의 이유현과 백승호를 활용해 만회골을 노렸지만 마지막 패스와 크로스가 최전방의 조영욱, 하승운에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경기를 주도하던 한국은 전반 27분 또 다시 포르투갈의 한 방에 당했다. 포르투갈 역습 상황에서 산테 실바가 오른쪽에서 연결한 크로스가 윤종규 몸에 맞고 굴절돼 뒤로 흘렀고 이를 브루노 코스타가 오른발로 바로 때려 추가 득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공 점유율을 높이면서 포르투갈의 골문을 노렸지만 상대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전반전을 끝냈다.

후반들어 한국은 공세를 높였지만 측면에서 연결되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좀처럼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후반 9분 이유현을 빼고 우찬양을 투입, 측면에 변화를 줬다. 2분 뒤에는 공격수 하승운을 빼고 미드필더 이상현을 넣으면서 중원을 강화했다.

변화 속에서도 한국이 결과를 내지 못하자 포르투갈은 후반 24분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골을 터뜨렸다. 이날 첫 골을 기록했던 사다스가 한국의 수비수들을 농락한 뒤 침착하게 슈팅을 연결, 쐐기골을 넣었다. 일부 관중들은 경기가 끝났다는 듯 경기장을 떠나기도 했다.

한국은 만회골을 위해 공세를 높였고 후반 36분 한 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우찬양과 이상현이 골을 합작했다. 우찬양이 왼쪽 측면서 내준 공을 이상현이 잡지 않고 바로 슈팅, 이날 한국의 첫 골을 기록했

다.

신태용 감독은 득점 후 바로 백승호를 빼고 수비수 이정문을 투입한 뒤 키가 큰 수비수 정태욱을 최전방에 배치했다. 롱 볼을 이용해 골을 노리겠다는 전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공격은 번번이 포르투갈 수비에 막히면서 더 이상 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2골차 패배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들은 허탈하게 그라운드 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포르투갈과 함께 '남미의 복병' 베네수엘라도 8강에 이름을 올렸다.

베네수엘라는 이날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16강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으로 힘겹게 이겼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대회 두 번째 출전 만에 8강 진출을 일궈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9년 이집트 대회에 처음 출전해 16강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미국-뉴질랜드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반면 일본은 2007년 캐나다 대회에서 16강에 오른 뒤 10년 만에 U-20 월드컵에 나섰지만 16강에서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셨다.

dyk0609@news1.kr



2017 FIFA U-20 월드컵 16강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축구경기에서 1-3으로 패한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통영 스탠포드 호텔 회원권 계약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호령했던 통제영 포구에
21세기 최첨단 호텔 콘도 리조트가 우뚝 섭니다.



LISTINGS



북부 보스턴 부촌의 이탈리아 카페
ASKING \$80,000



퀸지 마리나 베이의 고급 1 B/R 콘도
ASKING \$500,000



하바드 스퀘어 성업중인 아침, 점심,
샌드위치 가게
ASKING \$70,000



보스턴 서부 성업중인 세탁소
ASKING \$130,000

Jay B. Lee 781.654.5281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TEL. 617.467.5218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rish of Christ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혼..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소재 세탁소

- 프론트 데스크
- 풀/파트 타임
- 영어 가능자
- 차량 소유자
- 경험자 우대

* 연락처 : 617-319-4134

한국운전면허증 미국면허증으로 교환 타주 운전면허증 갱신, 당일발급
T. 617-388-7276, 917-340-0595

Western 세탁소, 카운터, 테일러 구함 테일러(Mo-Fr, 30-35시간, \$20/시간) (영어가능자) T. 603-401-0113

수선하실 수 있는 분으로 Drop Store 운영하실 분. *무료로 드릴 수도 있음. T. 617-955-793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3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기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기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불교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문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원연합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인간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생명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생명의 교회	617-947-6765
보스톤서부장로교회	617-777-1800
보스톤 성결교회	978-578-6987
보스톤 시온교회	781-894-3958
보스톤 한울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 시온성교회	781-686-5526
보스톤 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콤방	617-437-0378
케이토크메이커	508-734-4446
웨스트헤어디자인	617-947-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트 시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의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경정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영차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스치과	617-471-2184

"세월을 거스르는 동안성형, 탄력은 높이고! 나이는 낮추고!"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렉스성형외과' ... "수술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술해야"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 보이면 무시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려 보이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동안 열풍을 타고 TV에는 동안 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안인 사람들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는 나이에 맞게 늙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술과 수술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중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눈과 관련된 성형이다. 첫 인상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부위가 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눈가는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어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위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꺼풀이 처지고, 눈 밑이 처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이나 눈 밑 처짐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좀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늙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진 때문에 동안성형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자연스럽게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아졌다. 당연히 사진이 더 잘 나오기를 바랄 것이고, 눈꺼풀 처짐, 눈 밑 처짐은 사진이 잘 나오는데 방해하는 요소다.

★ **상안검수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눈꺼풀이 늘어져 처지게 되면 눈꺼풀이 눈을 덮어 눈을 찌르



처진 눈꺼풀, 상안검수술로 개선

나 시야를 가리게 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눈동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가 된다.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기 위해 이마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단순히 눈을 크게 뜨기 위해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 힘을 주게 된다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힘을 주거나 이마를 사용하기 보다는 성형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을 권한다.

눈꺼풀 처짐의 경우 상안검 수술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상안검 수술은 처진 눈꺼풀의 피부를 절개하여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근육, 지방 등도 같이 제거하여 눈

폴 처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를 안검하수라 하는데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기 때문에 줄려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다. 중년들의 경우 눈꺼풀 처짐과 안검하수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안검을 받는 것이 좋다.

상안검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른 편이다.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해야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안검 수술 부위는 쌍꺼풀과 같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쌍꺼풀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생기는 쌍꺼풀까지 고려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 **하안검수술**: 피부노화로 인해 눈



눈 밑 지방과 처진 피부, 하안검수술로 개선

밑의 피부가 처지거나 눈 주변 지방이 처지게 되면 눈 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된다. 늙어 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지만 심한 경우 고집 있어 보이고 괴팍하게 보이도록 한다. 눈 밑 처짐으로 인해 늙어 보이고 고집 있어 보인다면 자연스러운 피부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형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을 권한다.

눈 밑 처짐의 경우 하안검 수술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 뿌리 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절개 후 늘어진 피부, 지방을 제거하여 눈 밑 처짐을 개선시키는 수술이다. 눈 밑의 지방으로 인해 다크서클이 생기게 되는데 다크서클은 얼굴을 칙칙하고 어둡게 보이도록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다. 그래서 눈 밑의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여 다크서클을 개선시키는데 하안검 수술도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던 사람은 잔주름 개선은 물론 눈가가 환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마다 수술을 할 때 중점을 뒀어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하안검 수술 역시 수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른 편이다. 획일화된 수술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하는 것을 권한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 (reg. \$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복제인간 온다... '듀얼' OCN 장르물 인기 이끌까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국내 최초로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온다. OCN은 드라마 '듀얼'과 '터널'로 연이어 시청률 상승세를 탄 상황. '터널'의 후속작인 '듀얼'이 OCN 장르물 인기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듀얼'은 선악으로 나뉜 두 명의 복제 인간과 딸을 납치당한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복제인간 추격 스릴러 드라마다. 드라마 '커피하우스'와 '특수 사건 전담반 TEN' '인현왕후의 남자' '스무살' '듀얼' 등을 집필한 김윤주 작가가 대본을 썼다.

정재영은 주로 영화에만 출연해온 배우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듀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예전엔 드라마가 거의 안 들어왔다. 하고 싶어도 못했다"며 "영화든, 드라마든 그때마다 마음이 가는 작품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다. '듀얼'은 대본이 너무 좋다. 감독님이 너무 좋았고 믿음이 가서 한 번 만나고 결정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악녀 역할에 도전한다. 욕망에 가득찬 강력부 여검사로서 2년 만에 컴백하게 된 것. 김정은은 "악녀에 도전한 이유는 안 해봤던 거라 재미있을 것 같아서 흥미로운 것 같아서 했는데 성향과 달라서 어렵다. 냉철하고 잔인하다"며 "연기하며 감독님께 도움을 많이 청했다"고 출연 이유와 연기 과정에 대해 털어놨다.

또 정재영과 김정은은 '듀얼'의 완성도와 작품

성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정재영은 "대본은 물론 감독님이 너무 좋았고 믿음이 가서 한 번 만나고 결정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김정은은 "우리나라 드라마는 법정에서 사랑하고 병원에서 사랑하지 않나. 이번 작품은 기승전 뎀보가 아니라 좋았다. 숨 쉴 틈 없이 사건이 전개된다"고 귀띔했다.

드라마 '닥터스'로 주목받은 양세종은 '듀얼'로 1인2역 복제인간 역에 도전한다. 그는 "역할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지점을 버벅거릴 때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래서 정재영 선배님이 항상 다른 인물이라 생각하고 연기하라고 조언해주셨다. 성훈과 성준을 오갈 때 주문을 걸고 있다"고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종재 PD는 '듀얼'의 생소한 복제인간 설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복제인간 설정이라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걸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들이 필요했다. 드라마 내용에 중점을 맞추면서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도 함께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재영은 "전개가 매우 스피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듀얼'은 오는 6월3일 밤 10시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7일의 왕비' 첫방, 이동건X박민영 '예민한 왕+비운의 왕비'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7일의 왕비'의 이동건과 박민영이 첫 등장했다.

31일 오후 방송된 KBS2 새 수목드라마 '7일의 왕비(극본 최진영, 연출 이정섭)'에서는 이웅(이동건)과 신채경(박민영)의 첫 모습이 그려졌다.

비가 오지 않아 이역(백승환)은 시중을 드는 신하들과 기우제를 지냈다. 이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왕의 부도덕함을 뜻하는 것이다"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이웅은 국정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웅은 대신들의 국정보고를 묵살하고 가뭄에

도 백성을 걱정하지 않는 신하들을 다그치며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채경은 소복차림으로 폐위당하는 모습으로 강렬한 포문을 열었다. 신채경의 모습에 백성들은 "가엾어서 어찌나"라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KBS2 새 수목드라마 '7일의 왕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 폐비된 비운의 여인 단경왕후 신씨를 둘러싼 중종과 연산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로맨스 사극 드라마다.

jim928@news1.kr



'쌈마이웨이' 무모한 청춘에 보내는 응원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벌써 쫓겨 마라. 이제 시작이니까." '쌈, 마이웨이' 박서준, 김지원의 늦깎이 도전에 시청자들의 응원도 시작됐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연출 이나정, 극본 임상춘) 4회분에서 고동만(박서준 분)은 출장 진드기 퇴치사를 그만두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고 최애라(김지원 분)는 아나운서를 향한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에 시청자들의 코끝 찡한 응원의 물결이 쏟아지고 있다.

태권도 유망주였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태극마크 대신 동생 동희(고나희)의 수습비를 택했던 동만. "너만 양보하면 전부 행복해지는 거잖아" 라는 최코치(양기원)의 말처럼 가족을 위해 소중한 꿈을 포기했고, 이후로도 "근데 나만 좋자고 나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될 거 같다" 며 현실과 타협했다. "나 하나쯤 꿈 없어도 세상 잘만 돌아간다" 고 말이다.

마이크만 잡으면 날아다니던 애라 또한, 계속되는 실패에 아나운서의 꿈을 접었다. 사내 아나운서가 되어 한 줄짜리 데뷔 멘트, 그중에서도 "사내 아나운서 최애라였습니다" 를 몇 번이나 돌려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마저도 뺏기고 나이 어린 경쟁자에게 뺏기며 일 천하로 끝났기 때문. "강한 번 더 담벼보" 라는 동만의 말에 "들러리 하기 싫어. 어차피 난 안 시켜줄 거" 라며 체념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3회분에서 동만은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고, 애라는 아나운서 전문사 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며 재도전을 알렸다. 다시 꿈을 꾸기에는 늦었다고, 부족한 스펙의 현실은 마이너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마이웨이' 를 가겠다고 반기를 든 것. 특히 도전해야 할 청춘이라고 하지만, 불확실한 꿈에 도전하는 자체를 무모하다고 여기는 현실이기에 시청자들은 동만과 애라의 큰 결심을 지지하고 있다.

ichi@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5월 22일 ~ 2017년 5월 28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7.6%
2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5.2%
3	SBS	월화드라마(꽃속말)	19.8%
4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8.4%
5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16.1%
6	KBS1	KBS9시뉴스	15.0%
7	SBS	정글의법칙와일드뉴질랜드	13.0%
8	MBC	수목미니시리즈(군주가면의주인)	12.8%
9	SBS	아침연속극(아임쏘리강남구)	12.4%
10	KBS2	KBS스포츠투구(FIFAU20월드컵코리아한국:아르헨티나)	11.9%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4	SBS	아침연속극(아임쏘리강남구)
5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6	MBC	주말특별기획(도둑놈도둑님)
7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8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9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10	SBS	일일드라마(사랑은 방울 방울)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SIGNAL	TWICE
02	I LUV IT	싸이 (PSY)
03	New Face	싸이 (PSY)
04	맞지?	언니쓰
05	오늘 취하면 (Feat.창모)	수란
06	팔레트 (Feat. G-DRAGON)	아이유
07	모해 (mohae) (Feat. 볼빨간사춘기)	San E
08	REALLY REALLY	WINNER
09	BLUE MOON (Prod. GroovyRoom)	효린, 창모
10	사랑이 잘 (With 오혁)	아이유

숫자 퍼즐 (Sudoku)

5		3			2	9		
2	7			8	9			
						2		
6	1			3			5	4
				1				
4	8			9			3	1
		6						
			1	2			9	3
		5	8			1		7

6월 4일 - 6월 1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p> <p>●운수: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7, 10일 길일. 5, 9일 주의.</p>	<p>소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p> <p>●운수: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6, 7일 길일. 4, 10일 주의.</p>	<p>범띠 한 단계 발전할</p> <p>●운수: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금전: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각합니다. ●애정: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4, 8일 길일. 5, 10일 주의.</p>
<p>토끼띠 대책을 세워놓아야</p> <p>●운수: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금전: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한번 틀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p>용띠 기분전환이 필요한</p> <p>●운수: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금전:금전 출입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주머니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애정: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6, 8일 길일. 4, 7일 주의.</p>	<p>뱀띠 금상첨화의 운세</p> <p>●운수: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금전: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애정:가슴을 뚫어지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p>
<p>말띠 신중하게 행동해야</p> <p>●운수: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금전:한 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애정: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p>양띠 유리하게 작용할</p> <p>●운수: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금전: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p>원숭이띠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p> <p>●운수: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전: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는 구입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파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닭띠 깊이 생각해보아야</p> <p>●운수: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세일을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구입하지 마세요.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정: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개띠 웃으면서 즐겁게</p> <p>●운수: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금전: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 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애정: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돼지띠 치유되고 아물면서</p> <p>●운수: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애정:아직까지 마음의 주름이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9일 길일. 5, 10일 주의.</p>

씨스타, 마지막 완전체 신곡 공개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걸그룹 씨스타가 굿바이 싱글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씨스타는 31일 굿바이 싱글 'LONELY' 를 발표한다. 그룹 해체를 발표한 씨스타는 7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별을 노래한다. 효린, 보라, 소유, 다솜 네 명이 함께 부르는 마지막 노래다.

타이틀곡 'LONELY' 는 씨스타와 'Touch my body' 'I LIKE THAT' 으로 호흡을 맞춘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름이 작업한 어쿠스틱 알앤비다. 리듬감 있는 감각적인 기타 반주와 멤버들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조화를 이루어 헤어짐을 노래하듯, 애써 담담하게 내뱉는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기대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제법 자연스러워진 나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헤어짐 말이다. 이별을 예감하고 끝을 준비하는 여인의 가슴 아픈 독백이 씨스타와의 이별을 상기시킨다.

7년을 함께 하고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팬송도 마련했다. 효린이 작곡 및 프로듀싱하고 씨스타 멤버 모두



가 작사에 참여했다.

'시작이 같던 설렘 / 너도 기억하고 있니 / 지금 이 순간부터 다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고 지난 추억을 함께 해준 팬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멤버 4명이 직접 노랫말을 붙여 더욱 솔직한 감성을 전달하는 'For You'은 마지막인 걸 알면서도

안녕이란 말은 아껴두자는 말로 진

솔하게 이야기 했다.

씨스타는 현 가요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걸그룹으로 통한다. 시작은 귀여움도 섹시도 아닌 건강미였고 노선 자체가 특별했다. 포장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내숭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솔직한 모습으로 줄곧 정상을 지켰다.

hnh1@news1.kr



'효리네 민박' 첫 영업 종료 '스태프' 아이유도 30일 '귀가'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JTBC '효리네 민박'의 첫번째 영업을 마무리했다.

'효리네 민박'은 열흘의 첫 영업을 마무리 짓고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촬영을 종료했다. 민박집에 취업한 '스태프' 아이유는 30일 밤 비행기로 '귀가'했다.

31일 '효리네 민박'의 윤현준 CP는 뉴스에 "어제 촬영을 마무리했고, 아이유도 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제작진은 제주도에 남아 촬영 후 뒷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이 잘 진행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드리기 위해 잘 기다리는 작업만이 남아있다. 제작진이 많이 고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첫 방송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효리네 민박'은 제주도의 민박집에서 연예인 호스트와 일반인 게스트가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재미를 끌어내는 리얼예능이다. 이효리 부부의 제주 집 등 이들의 제주 생활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또 아이유가 민박집의 스태프로 합류했다는 소식과 함께 제주도 목격담, 사진 등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더욱 시청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ichi@news1.kr

'라스' 하하 "무도'하차 고민한적 있다...이유는"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31일 MBC '라디오스타'에선 김종민, 김준호, 박소현, 하하가 출연했다. 이날 하하는 '무도한전'에 하차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털어냈다. 그는 "당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됐다. 죄송해서 그만 뒤야 될

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 고 털어냈다. 하하는 "김종민과 함께 공익에 있을 때 수많은 기획도 짜고 나가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종민이가 먼저 복귀했는데 잘 안되더라. 나 역시 3주 정도 지나자 자신감이 하락했다" 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하는 "당시 종민이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했다. 심지어 그때 나역시 힘들 때였다. 종민이가 말하길 '나 꿈이 있는데 네가 되는거다' 라고 말하더라. 심지어 나를 부러워하고 있더라" 고 말했다.

galaxy9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클' PD '양극화된 2037년의 삶, 등장인물에 설득될 것'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2017년 미지의 존재로 인해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을 쫓는 '파트1: 베타프로젝트'와 감정이 통제된 2037년 미래사회 '파트2: 멋진 신세계'를 배경으로 두 남자가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김강우와 이기광이 호흡을 맞추는 '파트2: 멋진 신세계'는 20년 후인 2037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미세먼지,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황폐화된 일반지구와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지구로 극명하게 나뉜 미래의 대한민국이 '씨클'이 창조해낸 세계다. 스마트지구의 핵심은 감정 통제를 통해 범죄를 막는 안정 케어 시스템. 이 시스템 덕분에 질병, 범죄, 불행 없는 3無의 평온한 혁신도시가 탄생했다. 무려 5000일 동안 범죄 발생률 0%를 유지하는 획기적인 치안과 놀라운 혜택을 선사하는 스마트지구에서 첫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지구의 형사 김준혁(김강우 분)이 스마트지구로 들어가게 되면서 진실의 추적이 시작된다.

2037년 '파트2: 멋진 신세계'를 그리는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혁신적으로 변모한 스마트지구의 비주일이 아닌, 진보한 과학이 통제하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에 있다.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보다 과학적 진보의 과도기에 있는 진행형 미래를 설정해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감정을 통제하는 '안정케어 칩'이라는 독특한 설정도 보편적인 행복, 사랑, 감정과 기억이라는 드라마의 철학적 메시지를 관통한다. hmh1@news1.kr

티보플레이 5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아버지가 이상해
2	KBS	빛나라 은수
3	KBS	이름 없는 여자
4	SBS	아임쏘리 강남구
5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6	MBC	도둑놈 도둑님
7	SBS	언니는 살아있다
8	MBC	황금주머니
9	KBS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10	SBS	사랑은 방울방울

티보플레이 5월 4째주 신규 방송

1	MBC	씨클 이어진 두 세계
2	MBC	파수꾼
3	CJ E&M	섬총사
4	CJ E&M	밝히는 과학자들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1	임금님의 사건수첩	이선균
---	-----------	-----

'임금님의 사건수첩' 이선균X안재홍 '로코' 위협할 '군신 브로맨스'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이선균과 안재홍이 코믹한 '브로맨스'를 예고했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케미스트리'는 로맨틱 코미디 못지 않았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은 조선을 뒤흔든 괴소문의 정체를 파헤치는 임금 예종과 신입사관 윤이서의 모험을 그리는 코믹수사활극이다. 이선균이 예리한 추리력을 가진 예종 역을, 안재홍이 장원급제 출신 어리바리한 신입사관 윤이서 역을 맡아 콤플렉스를 선보인다. 또 김희원이 속내를 알 수 없는 병조참판 남건희 역을 맡았다.

공개된 영화에서 이선균과 안재홍은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코미디 호흡을 보여준다. 다혈질 임금과 굼뜬 사관이 티격태격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호흡이 큰 웃음을 준다. 이선균은 안재홍과의 코미디 연기 호흡에 대해 "내가 20일 정도 안재홍 얼굴을 보면 웃음이 터져서 NG가 너무 많이 났다"라고 말했다. eujenej@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신영의 세상 스케치

59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Memorial Day!(May 29, 2017) 추모식 &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옛그제는 Memorial Day!(May 29, 2017) 추모식 &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그 어느 행사보다도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인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가슴 뿌듯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남녀노소를 합해 25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앤도버 소재의 Bartlet Street을 출발 타운홀까지 각 전쟁에서의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다. 퍼레이드가 열리는 길목에서 타운의 주민들과 많은 인파들이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강경신 회장(E.지구 6.25참전 국가 유공자회)과 유영심 회장(한미노인회) 그리고 안병학 한인회 이사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행사의 사진을 담고자 참석했는데 내게는 그 이상의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고 복과 장고를 들고 퍼레이드 행렬에 있는 한국인을 보며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또한, 아흔을 훌쩍 넘긴 국가 유공자 강경신 옹의 활기찬 걸음걸이에서 또 하나의 파란

희망의 싹을 보았다. 참으로 귀하신 어르신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동의 여운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다.

"The Korean monument along Barlet Street honors Andover Men and women who served "and those who did not return." Anestimated twelve hundred enlisted in the war. The names of four men are memorialized on the monument which was dedicated on Memorial Day, 2008."

미국 대사추세츠 앤도버 소재의 타운 홀 광장에는 2008년 현충일(Memorial Day)에 헌정된 기념비가 세워졌다. 한국전쟁에 약 1,200 명이 입대했으며 기념비에는 4명의 참전했던 참전용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한국전쟁 67돌을 맞이하는 2017년을 맞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이름들이다.

과거만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과거 속에서 오늘과 미래를 보는 것이다. 바로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오늘이 숨 쉬고 있는 이유이다. 역사는 잊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잊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며 사는 것이 역사인 까닭이다. 세월이

흘렀다고 빛이 바랬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오는 국제정세 속에서 진정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미국 땅에 산다고 한국인의 뿌리가 흔들리지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또 일러주어야 할 일이다. 내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분단된 내 조국의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 일러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한국전쟁은 어떤 색깔과 모양과 무늬로 받아들여질까.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 또래의 한인 2세 3세들에게는 남북으로 분단된 내 조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일러주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뿌리를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식과 자손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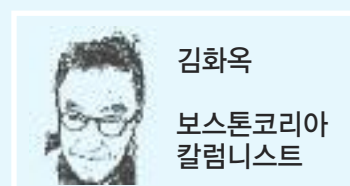
우리 집에는 시집으로 미국 공군 대령을 예편한 시아주버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조카 녀석이 지금 미국 공군 대위로 있다. 또한, 친

정으로는 막내 언니 아들 조카 녀석이 육군 대위로 있다. 그래서 가끔 군대에 대한 얘기를 듣곤 한다. 그래서일까 가끔은 내심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울 때가 있다. 한국인들 남자들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나 핑크기핑때 모임이면 미국 군대 얘기를 듣는다. 한국을 방문해 조카 녀석을 보게 되면 한국의 군대 얘기를 듣는 것이다. 참으로 자랑스롭다.

그저 사진을 담고 싶어 참석했던 이번 Memorial Day!(May 29, 2017) 추모식 & 기념행사에 다녀오면서 내게 참으로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다.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아쉬운 마음이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등한시했던 나 자신의 부족함을 타했다. 또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교회나 그 외의 단체들과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물론, 메모리얼 데이 되면 long weekend라 많은 가족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기도 하다. 그래도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아스피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나는 봄을 탄다. 해마다 봄이면 시름시름 미열과 두통에 기운을 차릴 수 없다. 이번 봄은 예외이다. 큰 두통없이 슬그머니 넘어 가는듯 싶다. 남들은 가을을 탄다. 목필균 시인이다. 가을이면 신열이 오른다 했다.

9월이 오면 앓는 계절병
혈압이 떨어지고
신열은 오르고
고단하지 않은 피로에
눈이 무겁고
(목필균, 9월에 중에서)

당의정糖衣錠이란 말 기억하시는가. 입에 쓴 내용물을 달작하게 코팅한 약을 말한다. 요사이에는 아이들 먹기 좋게 울긋불긋 당의약도 흔하고 시럽과 물약도 있다. 그래도 약은 언제나 입안에서는 쓴다. 좋은 약은 입에 쓴뎌. 양약고구良藥苦口라 하던가? 옛날엔 당의정은 커녕 아스피린 한 알도 귀했다.

아스피린은 해열제이다. 또 진통제이기도 하다. 해열제는 순간 고체온高體溫만 낮춰준다. 진통제는 통증만 잠시 누른다. 근본치료약은 아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기억이 가물 가물 나는듯도 싶다. 아마 대여섯 살 즈음일게다. 그해 봄날, 고열이 났던 모양이다. 아랫목

에 누운 내 눈에, 희미하게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돌아서는 아버지 손엔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잘게 부순 하얀 약을 물에 탄 것이었다. 아버지의 궁여지책이었다. 약알을 토막냈고, 물을 대어섯 방울 넣어 숟가락위에서 이겨냈다. 그리고 열이 난 아이의 입에 넣어주셨다. 약물을 다 삼킨 아이는 박하사탕 한개를 얻어 먹었다. 사탕은 그닥 달지 않았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는 해열제가 필요하다. 아스피린 한알도 귀할 적이었는데, 어렵게 구한 알 약은 아이에게 너무 컸다. 그리고 너무 썼으며, 너무 독했던 거다.

한국 새 대통령이 공약했던 걸 실행하려 하는 모양이다. 전광석화마냥 빠르게 진행시키고 싶어 거다. 성패는 임기 초반 100일안에 결판난 다했으니 말이다. 글쎄, 공약公約은 달작지근 했는데, 아스피린 한알 삼기듯 쉬운 문제일까? 하긴, 높은 양반들 하는 일이다. 어렵히 알아서

잘하겠는가. 하지만 한가지 기억하시라. 당의정은 먹을 적엔 달작한데, 내용물은 언제나 쓴다.

하나 더 덧붙여야 겠다. 약藥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길게 있으면 반드시 항항이 있는법. 순順하기도 하다만, 역逆도 상존한다.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아스피린 자주 먹으면 속쓰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아무리 양약良藥이라 해도 안먹는게 최선이다. 아픈데 약을 안먹을 수도 없다. 그건 문제다.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 전서 5:23)

1. 밝히는 바, 필자는 약사가 아니다. 그저 주위 들은 이야기를 늘어났다.
2. 네이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리나 자신에게 이로움을 이르는 말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p>2017 Hyundai Elantra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p> <p>FWD, Automatic, HQ11289</p> <p>LEASE: \$6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5,631 MSRP: \$16,800 Incentives: \$1,169 Price As Shown: \$15,631</p> <p>FINANCE: 0.9% APR Residual: \$12,100 Purchase Price: \$15,631 Total Due at End of Lease: \$3,531</p>	<p>2016 Hyundai Elantra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p> <p>FWD, Manual, HQ11603</p> <p>LEASE: \$8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3,290 MSRP: \$14,500 Incentives: \$1,210 Price As Shown: \$13,290</p> <p>FINANCE: 0% APR Applied to 24 months with \$9,000 cash rebate and \$4,290 cash rebate</p>	<p>2016 Hyundai Accent GLS Sedan</p> <p><i>This vehicle features:</i>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p> <p>FWD, Automatic, HQ11525</p> <p>LEASE: \$11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2,798 MSRP: \$14,000 Incentives: \$1,202 Price As Shown: \$12,798</p> <p>FINANCE: 0% APR Available for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2017 Genesis G80 3.8</p> <p><i>This vehicle features:</i>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p> <p>AWD, Automatic, HQ11680</p> <p>LEASE: \$41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p> <p>PURCHASE: \$45,500 MSRP: \$46,000 Incentives: \$500 Price As Shown: \$45,500</p> <p>FINANCE: 1.9% APR Residual: \$32,000 Purchase Price: \$45,500 Total Due at End of Lease: \$13,500</p>	<p>2017 Hyundai Santa Fe Sport</p> <p><i>This vehicle features:</i>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p> <p>AWD, Automatic, HQ11629</p> <p>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p> <p>PURCHASE: \$23,527 MSRP: \$24,500 Incentives: \$1,973 Price As Shown: \$23,527</p> <p>FINANCE: 0.9% APR Applied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2017 Hyundai Tucson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p> <p>FWD, Automatic, HQ11289</p> <p>LEASE: \$175/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p> <p>PURCHASE: \$20,248 MSRP: \$21,500 Incentives: \$1,252 Price As Shown: \$20,248</p> <p>FINANCE: 0% APR Available for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2017 Hyundai Sonata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p> <p>FWD, Automatic, HQ11830</p> <p>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8,197 MSRP: \$19,500 Incentives: \$1,303 Price As Shown: \$18,197</p> <p>FINANCE: 0% APR Residual: \$13,500 Purchase Price: \$18,197 Total Due at End of Lease: \$4,697</p>	<p>2017 Hyundai Santa Fe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p> <p>AWD, Automatic, HQ11442</p> <p>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29,003 MSRP: \$30,000 Incentives: \$1,000 Price As Shown: \$29,003</p> <p>FINANCE: 0% APR Applied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한국인 딜러</p> <p>Earl Ko <small>고을</small>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p>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돈의 흐름에 관한 묵상

사람들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이는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모자란 그 무엇으로 생각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은 물과 같다고 생각된다. 돈, 즉 자본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자본은 물과 같이 늘 흘러나간다고 생각한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자본도 계속 흘러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 남미와 아시아 개발국가에 흘러들어갔던 돈은 IMF 등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 시장으로 몰렸다. GE 같은 초 대기업도 그 당시에는 연 100%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야후같은 인터넷 기업은 3-4배 이상의 주식가격 상승으로 자본을 늘렸다. 그러다 사람들이 다시 수근거렸다. 고여있는 물은 흐르

지 않기 때문에 썩는다. 마찬가지로 한곳에 모인 돈도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이때부터 모두들 인터넷 거품이 터질거라 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90년대 후반에 중국식당을 경영하던 밍씨는, 나를 볼때마다 Lucent Technologies 를 사라고 강추해주었다. 주당 80 불씩하던 주식이 이제 주당 40 불이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올인하라고 재촉했었다. 그 주식이 얼마후 20 불이 되었을때는 더 더욱 올인을 권고했었다. 주식이 2달러대로 떨어진 후, 불쌍한 밍씨는 아직도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인터넷의 거품이 빠진 후에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2000년대 초 - 중반까지는 주택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자본을 늘렸고, 2007년 주택거품이 터질거라는 경고에도 2008년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손을 때지

못했다. 결국 미국 아니, 세계 경제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금융파동을 겪고 10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회복 중이다.

그후 돈은 원유와 금으로 흘러갔다. 원유와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원유와 금의 수요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보일 만큼 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가격은 몇 배이상 오르고 있다. 돈이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많은 자본가들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와 금에서 거품이 빠지고 다시, 돈이 주식에 몰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비해서 주식의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주식투자자들의 자본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다시 흐를 것이다. 성공한 자본가는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빨리 감

지하는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했는지 알 것이다. 1, 2대에서 벌어들인 돈을 3대에서는 현상유지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막으면 결국 썩게 되기 때문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81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1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녀는 덕만공주로 632년에 선덕여왕으로 즉위하였다. 차녀는 천명공주이다. 천명은 5촌 당숙인 김용춘과 결혼하여 김춘추를 낳았다(삼국사기에 따르면 덕만이 장녀이다. 삼국유사에는 그냥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인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천명이 장녀로 나온다. 또한 현대인들의 작품 가운데는 쌍둥이로 그려지기도 한다. 어떻게 누가 장녀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또 한명의 딸 선화공주善花公主(또는 善化, 백제의 무왕이 된 서동과의 사랑이야기 주인공이다)가 등장한다. 이 선화공주는 삼국사기나 화랑세기 등 다른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랑세기에만 삼녀 천화공주天花公主가 등장한다. 천화공주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삼국사기에는 덕만공주와 천명공주가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딸들이 등장하는데 선화공주도 있다. 그리고 신라인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에선 천명공주, 덕만공주, 천화공주가 나온다.

여기서는 신라의 일부일처제의 제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공주, 천화공주의 인생유전을 화랑세기를 통해 따라가 본다. 천화는 처음에 진지왕의 큰아들인 김용수에게로 시집 갔다. 즉 용수는 천화의 오촌당숙이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진평왕은 용수를 맏딸인 선덕공주의 남편으로 삼아서 왕위를 이을 '성골'을 보

려고 했다(결과는 그들 사이에서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용수도 왕위를 잇지 못했으며, 선덕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 졸지에 천화는 남편을 선덕공주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용수는 천화를 동생인 용춘에게 혼인시켰다(생물년이 미상인 용춘의 부인 천명공주는 이때 김춘추를 낳은 뒤 죽은 것으로 보인다). 천화의 박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선덕과 용수 사이에 아들이 생기지 않자, 진평왕은 동생인 용춘에게 선덕을 받게 하였다. 천화는 이번에 또 남편을 선덕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진평왕은 천화에게 백룡공白龍公이라는 남자에게 시집가게 하였다. 그렇다면 왜 천화는 남편을 바꾸어야만 했던가? 당시의 제도인 일부일처제의 원칙 때문으로 보인다. 첩의 신분으로 격하되기 전에는 남편을 공유할 수 없는 당시의 제도가 천화로 하여금 세번에 걸쳐 정부正夫를 가지게 하였다. 물론 많은 여인들이 첩의 신분으로 남편을 공유하였지만 공주의 신분으로 첩이 된 사례는 없다. 또한 진평왕에게는 '석가'라는 이름이 될만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에, 성골 남자는 자신만 홀로 남게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성골 남자를 절박하게 원하였지만 '슈도다나'208) 처럼 '석가모니'의 탄생을 보지 못했다. 결국 그가 신라의 마지막 성골 남자 왕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선덕여왕과 동생 국반의

딸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씨가 말랐다. 다음 왕이 진골인 태종무열왕 김춘추이다.

207) 김용수라고도 기록되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동일인으로, 화랑세기에는 형제로 용수가 형이다. 진흥왕의 손자이며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지도부인이다.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와 결혼하여 김춘추를 낳았다(602년). 김용춘은 아버지 진지왕이 폐위당할 때 성골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족강이 된것 같다. 진평왕의 동생인 김국반은 왕이 된적도 없지만 그의 딸 진덕은 왕이 되었다. 이 진덕여왕이 신라의 마지막 성골왕이다.

부인인 천명공주는 생물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김용춘은 578년생이며 647년에 졸하였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천명은 아버지 진평왕의 명으로 왕위를 동생인 덕만공주에게 양보한 뒤 출궁하였고, 성골에서 진골로 족강되었다.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이며 삼국사기만으로 풀리지 않았던 '빠대'의 의문이 풀린다. 18세 풍월주를 지낸 '춘추공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08) 당시 신라 왕실을 석가모니 가문과 동일시하여 진평왕의 이름을 석가의 아버지인 백정(슈도다나, 백정왕, 정반왕)으로, 부인은 마야부인, 동생들에게는 백반, 국반 등 석가모니 삼촌들의 이름을, 딸 덕만에게도 석가모니의 누나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부처의 노여움을 샀는지 몰라도 정작 '석가모니'가 될 왕자는 태어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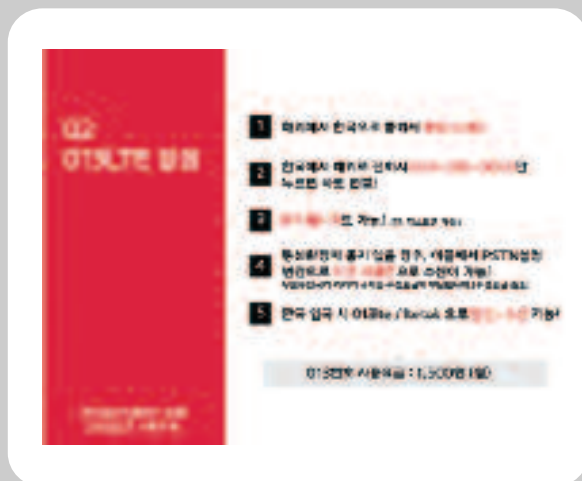
보스톤에서 한국전화번호를 사용하자!

엄마!
617 미국번호 아닌
013 한국번호로
전화해 ♥♥♥

분당: 5¢ (60원)
월 사용요금:
\$1.50 (1500원)



쉽고 편리한 국제전화!
013LTE



가입 문의:

617.955.9112

161 Harvard Ave. #13, Allston, MA 0213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生 (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빌라도) 말과 같이 내가 왕이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生)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Jesus answered, "You say that I am a king. In fact, the reason I was born and came into the world is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 요한복음 18:37

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사드(THADD) 4기 모 캡트 보관"이란 문구를 처음 보고서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安保) 실장이 "4기가 추가로 들어왔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게 있습니까?"라고 모르는 척 했다는 발표도 했다.

이 발표가 맞다면 국방부가 사드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문제일 수밖에 없다.

사드는 새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는 만큼 상세히 보고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발사대 4기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난 4월 말부터 공지사실이었는데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것을 모를 수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면 그 자체가 심각하다.

국방부가 무엇을 감춘다는데 새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바쁜 국방부가 감춰서 얻을 실익(實益)이 뭐가 있는 지 알수 없다.

동맹국 미국이 주한 미국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요청했는데 중국이 싫어한다고 거절하면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북핵(北核)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당장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강하게 항의할 수도 있을 듯.

국방부 부실 보고는 내부적 책임 추구에 그치고 중요한 동맹관리와 안보전략에 전력 집중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 까지는 현재의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으로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MDA) 짐 실링

국장은 31일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는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체계이다.

GMD의 하부체계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 미사일을 GBI(Grand-Based Interceptor)라고 한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MDA)은 31일 GMD 방식을 이용한 첫 ICBM 요격시험에 성공한 것.

실링 국장은 "시험 전부터 북한과 이란이 가할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어제 시험 이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요격 시스템으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다중 목표 요격 미사일 (MKOV) 개발에 들어가 2025년에 완성할 계획이라 한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사드(THAD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관련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더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 (약 1조 300억원,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사실이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미군 당국은 사드 배치 모든 과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는 현재 조기 요격 능력만 보유한 상태"라며 "기능을 더한다면 완벽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사드 배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긴 대한민국의 존립(存立) 문제와 연결된 것이 사드라면 지나친 말일까?

生 生 : ① 産也 산야 : 낳을 생 ② 出也 출야 : 날 생. 이 두가지 '생' 뜻이 하나같이 무(無)에서 유(有) - '없고 안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生자를 분석하면 ① 丿 : 左引之 좌인지 : 빼칠 별 : 쉽게 말하면 '사람의 호흡 - 숨결을 그린다. 이 숨결의 시초가 성경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靈이 된지라 :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에 나타난다.

이 성경 말씀보다 生자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려낸 성경구절은 없다.

그림 그대로 "生"은 "主(주님)의 숨결(丿)"을 그리고 영생(永生)을 표시했었는데...

그 영생의 주님이 ① 사랑의 십와 ② 土(흙)으로 갈라져 육신(肉身)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 물론 십의 사랑은 '하늘로 올라가 영생을 누리지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善惡)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 삼

위 :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

And the LORD God said, "The man has now become like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He must not be allowed to reach out his hand and take also from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After he drove the man out, he placed on the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flashing back and forth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 창세기 3:22,24

예수 그리스도, 주(主)님의 신분증이 "사랑(十)을 죄인(罪人)에게 쏟아 영생(永生)의 길을 열어 주시고서는 "십위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 다시 "부활(復活)"하셔서 영생을 증거"하신 것이 "생의 진정한 뜻"임을 반증하시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永生)을 갈망하면서도 십사상을 통한 죽음, 말을 바꾸면 영생(영생)에 이르기 위한 잠사(暫死: 잠시 죽었다가 영원히 깨어나는 것)를 거치는 것을 싫어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them. This i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Your ancestors ate manna and died, but whoever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 요한복음 6:55, 56, 58.

내 몸엔 주님 숨결(丿)이 드나드는가?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978.664.2321, Fax:978.664.2314
E-mail:autobody.hk@gamil.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성형, 눈성형, 가슴성형, 지방흡입, 지방이식, 안티에이징 전문

렉스성형외과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렉스성형외과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세요~

- 렉스만의 올인원 시스템 구축 ... 정재훈 원장님이 상담, 수술,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십니다.
- 개인별 맞춤 성형 ... 스페셜 성형 클리닉을 통해 코, 가슴, 주름에 있어 개인별 맞춤 성형을 제공합니다.
- 빠른 일상복귀 ... 수술 후의 불편함과 통증을 최소화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 환자의 안전 최우선 ...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안전한 마취로 환자의 안정을 지켜드립니다.
- 서울대 동문병원 ...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동문병원으로 전문적이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진료합니다.

눈꺼풀처짐, 눈밑처짐 고민 그만 상안검, 하안검

- 1) 상안검 : 480만원 → 168만원
- 2) 하안검 : 480만원 → 168만원

김쪽같이 시간을 되돌리자 스마트 리프팅

- 1) 스마트 리프팅 : 720만원 → 600만원

동안을 향한 지름길 폴페이스 지방이식

- 1) 폴페이스 지방이식 : 280만원 → 200만원

숨겨진 S라인을 찾아라 올인원 지방흡입

- 1) 팔뚝 : 260만원 → 280만원
- 2) 복부 : 600만원 → 450만원
- 3) 허벅지 : 450만원 350만원



정재훈 대표원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자문의
- 대한성형외과학회 종신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미용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8) 자영업 은퇴계획

일반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은퇴계획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은퇴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하기 해도 바쁜 상황에 몇십 년 후의 은퇴계획은 그야말로 '말자 편한'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에게 7% 투자 수익률을 말하면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웃 한 벌 25달러에 가져와서 50달러에 팔면 100% 수익'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부가 매년 할 수 있는 IRA에 \$10,000을 7% 이자로 투자하면 30년 후 약 백만(\$1,000,000) 달러로 불어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은퇴계획은 SIMPLE IRA와 SEP IRA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퇴계획의 장점은 IRS

에 은퇴제도와 복잡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IMPLE IRA

일반적으로 은퇴계획 참여자격 여건이 되는 직원 수가 100명 이하입니다. 직원들의 참여자격 조건이 지난 2년 사이 최소한 5천 달러 이상 급여를 받았고 올해 역시 최소한 그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이 직원의 은퇴계획에 적립해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01(k)처럼 자신의 월급 일부를 적립하는 직원에 대해서 매칭해 주기를 원한다면 해당 직원 연봉의 최고 3%까지 100% 매칭을 해줘야 합니다. 5년 중 2년까지는 매칭을 1%까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 2017년 직원마다 \$12,500까지 적립할 수 있고 50세 이상 직원은 \$3,000을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적립 여부와 상관없이 업주가 일괄 적립을 결정한다면 각 직원 월급의 2%를 적립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5,40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수익은 찾을 때까지 세금유예 혜택을 받지만 59.5세 이전 인출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은퇴계획은 은퇴를 위한 투자입니다. 은퇴하기 전에 찾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은 은행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고용주의 적립금은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절약됩니다. 적립금은 들어가는 즉시 해당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고용주에게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를 알고 싶으면 전문가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SEP IRA

자영업을 운영하는 주인의 수입이나 봉급 20% 혹은 25%까지 은퇴자금으로 투자하면 세금 보고할 때 그만큼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준비로 투자한 최대 금액 54,0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그해에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EP IRA는 직원의 적립 선택 없이 업주가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계획입니다. 직원

의 은퇴계획 참여조건은 나이가 21세 이상, 1년 소득 \$600 이상,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5년 중 3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직원 수가 많으면 회사 측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인 한 사람 혹은 부부만 일한다면 일반 개인 은퇴계획(IRA)의 적립 한도보다 훨씬 많이 투자할 수 있으므로 세금절약과 함께 많은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적립 한도액은 2017년 기준 \$54,000이지만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은퇴계획 참여자에 대해 같은 비율로 적립금을 계산하며 적립금은 물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재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은퇴준비는 작은 액수를 세금혜택과 함께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커다란 목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재투자자와 은퇴준비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카시의 말로 그리고 부역자들

1954년 6월 2일, 당시 상원의원 조지 프 매카시 (Joseph McCarthy), CIA와 핵무기 산업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다.

매카시즘 광풍을 몰고 와 미국 전역을 적색 공포 속에 몰아 넣었던 그 위스콘신 출신 상원의원 매카시가 원래부터 정치 거물은 아니었다. 매카시가 판사로 재직 하던 시절 위스콘신의 낙농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덕에 그 주에서는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 정계 진출을 권유 받아 공화당 상원의원에 올랐는데, 그의 배경이 아일랜드계 카톨릭이었던 덕에 소속 정당은 달라도 케네디 가문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의 매카시는 뇌물수수, 음주, 경력 위조, 명예 훼손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위태로운 처지의 정치인이었다.

어쨌거나 1950년 초, 매카시가 “반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과시즘에 대해 싸웠던 세계 제 2차 대전의 결론이 소련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냉전으로 접어들었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했을 일이다. 물론 매카시가 반공주의의 창시자는 아니다. 가령 1938년 설립된 하원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 (HUAC: 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는 1947년 무렵부터 1950년까지 다수의 할리우드의 작가, 배우, 감독들의 정치적 신념 혹은 그들이 현재 혹은 과거에 속해있던 조직 등을 문제 삼아 영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영화 및 연예 사업에서의 활동을 제한했던 역사가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으나 별다른 혐의 내용을 찾지 못한 영화인들도, 그리고 부당한 조사에 거부한 인사들도 할리우드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혹은 수년 동안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물론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HUAC에 협조한 영화인들도 있는데, 예텐의 동쪽의 거장 감독인 엘리아 카잔 Elia Kazan, 훗날 대통령이 되는 Ronald Reagan 등이다. 이들 역시 평생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카시가 들고나온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 파장이 훨씬 컸다. 바로 미국 국무부에 무려 200명이 넘는 소비에트 간첩이 암약하고 있고, 매카시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매카시는 미국 정부의 여러 부서마다 곳곳에 공산주의 간첩이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거치지 않은 채, 매카시의 주장을 받아쓰기하고, 연일 헤드라인으로 장식해 준 언론도 문제였다. 매카시의 정치적 희생은 그렇게 적색공포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별 영향력도 없던 매카시는 대체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것도 각 정부 부처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을까? 사실 매카시는 단 한 명의 공산주의자도 제대로 밝혀낸 적이 없다. 그러나 매카시는 동유럽에서의 소비에트의 세력 확산이라든가 중국의 공산화를

목도하면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최측근으로서 알타 회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했던 앨저 히스가 간첩으로 기소되는 사건을 보면서 생겨난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중의 히스테리를 자극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매카시 광풍은 매카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공산주의에 정서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공화당의 입장에서 매카시가 나름 유용한 무기였기에 매카시가 조장하는 적색 공포를 용인했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공산주의 낙인이 찍힐까 몸을 사리기도 했다.

매카시즘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은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의 집권 당시다. 처음에는 매카시의 덕을 봤던 공화당이었지만, 매카시 방식의 마구잡이식 빨갱이 사냥이 도를 더해갈 수록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 인사들도 술술 매카시즘과는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조성되었다. 이 무렵

매카시는 다시 한번 미국 일반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미국 육군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는 위험한 주장을 들고 나선 것이다. (I like Ike의 그 Ike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육군 출신이다)

결국 1954년 6월, 매카시-육군 청문회가 근 한 달간 열렸고 미국 시민들은 그 유명한 매카시를 텔레비전 중계로 보게

되었다. 티브이를 통해 대중에게 각인된 매카시는 그저 약자를 괴롭히는, 히스테리컬한 인사였을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가 주장해왔던 공산주의 간첩 운운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폭로였을 뿐이라는 것도 만천하에 알려지고 매카시의 주장은 급속하게 설득력을 잃어갔다. 여기서 매카시는 다시 한 번 무리수를 두는데, CIA와 핵무기 제조 산업에도 소비에트 간첩이 침투해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매카시의 육군내 간첩 침투설이 자살 골이었다면, 매카시의 CIA에 대한 포격은 일종의 정치적 확인 사살이었을 것이다. 마치 실체도 없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던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CIA국장 알렌 딜레스 (Allen Dulles), 그리고 국무부 장관 포스터 딜레스 (Foster Dulles)는 지금까지 매카시가 공격했던 ‘공산주의자’가 사실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매카시는 더이상 회생하지 못했다. 얼마 뒤 미국 상원은 매카시 불신임에 투표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57년, 겨우 48세의 나이에 매카시는 사망했다.

블랙리스트 혹은 좌파 낙인 찍기... 반세기 전 미국에서, 그리고 불과 얼마전의 한국에서 현실이었던 역사다. 매카시 같은 단 한사람의 광인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 언론도,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는 정치인도 사실상 부역자 아니었을까?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6월 첫째주)

● PERM (노동허가서)

취업이민과정에서 노동허가서를 관장하는 OFLC는 노동허가서가 신청된 후 이 신청에 대한 확인을 하는 날짜를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허가서가 신청되면 OFLC는 고용인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서가 그 신청인으로 부터 신청됐는지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신청인은 이 이메일을 받은지 7일안에 OFLC에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OFLC는 확인 이메일을 보낸 지 7일안에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인에게 23일 안에 답변을 해야한다는 이메일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 새로운 통역자격 조건

지난 칼럼을 통해 이민국의 새로운 통역자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고 반드시 G-1256이라는 Form 을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G-1256 을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발표를 통해 G-1256의 작성은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직원이 하게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은 인터뷰 직전 이 Form 을 작성하며 신청자와 통역자에게 이 Form 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청자와 통역자는 G-1256 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정확한지만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 I-20 가 취소된 학교

보스톤 지역은 아니지만 텍사스 휴

스턴 소재 International Christian Institute & Linguistics School 이란 학교의 I-20 에 대한 발급이 중단되면 이 학교에서 발급된 모든 I-20 는 오는 6월 29일부로 모두 취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e.gov/sevis/school-alerts#wcm-survey-target-id>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위에 기재된 국토안위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교의 I-20 가 중단/취소될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3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다른학교로의 전학,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아니면 출국입니다.

● 더 까다로워진 비자 신청

지난 5월23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의 비자 신청을 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행정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SNS)에 관련된 질문과 지난 15년간의 개인정보 (주소, 직장, 여행기록 등)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자 신청서가 기존의 신청서를 대체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만료된 여권 번호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의 기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심사기간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네요. 이번 여름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시고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비자 신청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칼럼 - [이민법]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 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추방재판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재판관은 추방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보장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이용하여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예로 다양한 면제조항에 근거한 I-601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체류하고 있던 김 모 씨는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민 브로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ICE 의 체포 대상이 되었고 체포 후 이민 사기건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민국 검찰

에게 이민사기건 입증 의무가 있음을 들어 기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모 씨는 미국에서 범죄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 아기의 아버지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김 모씨가 미국에서 추방이 될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 자녀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법 체류 및 이민사기건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를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김 모 씨는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되었고 추방재판도 종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 이 모 씨는 마리화나 소지로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모 씨의 부모님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당시 이 모 씨가 성년이였기 때문에 이 모 씨는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학생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졸업하고 마리화나 기록 때문에 미국 취업도 여의치 않아 결국 정상적인 신분 유지에 실패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지인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었고 추방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서 저희는 이 모 씨가 비록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었지만 30그램 미만의 단순 소지였었고, 이후 오랜 기간 추가적인 위반은 없었으며 이 씨의 부모님이 지병으로 인해 이 씨의 도움 없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을 근거로 불법체류 기간과 마리화나건에 대한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 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케이스에서 차 모 씨는 20대의 명품을 좋아하는 아가씨였습니다.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차 모 씨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차 모 씨의 시민권자 남자친구는 차 모 씨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결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그녀의 범죄 기록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면밀한 분석 끝에 면제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차모씨의 행동이 경제적 궁핍함에서 나온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고 그녀가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 남편이 겪을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과 국외 이주 시 경제적, 언어적 어려움을 들어 면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차 모 씨는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행복하게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도 차분하게 상황을 점검해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많은 역할 중 하나가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차선책과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입국금지 면제 절차는 테러나 나치범과 같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국금지 항목에 대해 면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자신이 입국금지 면제 절차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영주권

H-3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턴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1명+직원5명

보스턴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턴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턴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턴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450,000+ 주 6일 영업

보스턴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턴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성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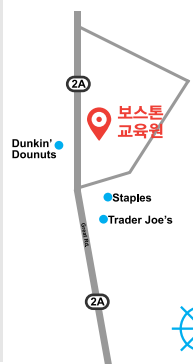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